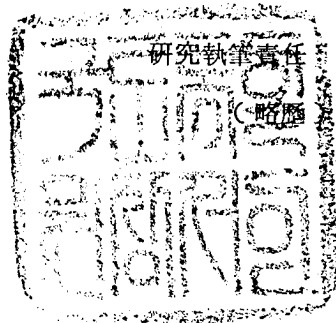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統一對話政策 開發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蘇聯 및 東歐諸國의 經濟改革과 中共經濟改革의 比較研究

1986. 12.



林 陽 澤

고려대학교 정외과 졸업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1978)
한양대학교 경제학교수
(1979~현재)

國 土 統 一 院

目 次

I . 序	5
II . 社會主義國家에서의 經濟改革의 背景	8
第 1 節 社會主義국가들의 경제 개발전략과 脫스탈린화	9
第 2 節 社會主義諸國의 經濟危機	11
第 3 節 蘇聯의 經濟改革의 必要性	14
3 . 1 經濟成長率의 純化	15
3 . 2 經濟體制의 全般的인 非效率性	17
3 . 3 科學技術政策의 不舍利性	17
3 . 4 과다한 국방비 지출	19
第 4 節 中共의 實用主義 路線의 背景	21
4 . 1 自然災害에 의한 食糧生産 減縮	24
4 . 2 國家財政의 赤字增大 및 基本建設의 規模縮少	25
4 . 3 加速的인 인플레이션 현상	26
4 . 4 資源生産의 不振	27
4 . 5 社會的 不安의 高潮	28
4 . 6 對外經濟開放의 促進 背景	29
III . 各 國家別 經濟發展過程 및 經濟改革의 推進實態	31
第 1 節 소련의 경제발전과정과 경제개혁	31
1 . 1 소련의 경제 발전단계	31
1) 戰時 共產主義 時期	32
2) 新經濟 政策期 (NEP)	33

3) 集團化, 重工業化的 스탈린 체제시기.....	35
4) 戰中과 戰後期	37
1 . 2 소련경제의 문제점	38
1 . 3 소련 經濟改革의 변천과정과 내용.....	42
1) 1960 년대의 經濟改革	42
2) 1970 년대의 産業構造 개편	45
3) 1980 년대의 新經濟改革	47
第 2 節 中共經濟의 發展過程과 經濟改革.....	50
2 . 1 中共經濟의 發展過程	50
1) 經濟再建期 (1949 ~ 52 년)	51
2) 제 1 차 5 개년계획기 (1953 ~ 57 년)	51
3) 제 2 차 5 개년계획기 (1958 ~ 62 년).....	52
4) 經濟調整期 (1963 ~ 65 년)	52
5) 제 3 차 5 개년계획기 (1966 ~ 70 년).....	53
6) 제 4 차 5 개년계획기 (1971 ~ 75 년).....	55
7) 제 5 차 5 개년계획기 (1976 ~ 80 년).....	56
8) 제 6 차 5 개년계획기 (1981 ~ 85 년).....	57
2 . 2 中共의 新經濟改革	58
1) 中共의 新經濟政策의 方向	59
2) 經濟改革의 추진내용	62
① 企業經營의 自主權 실시	62
② 계획적인 市場調節 실시	63
③ 財政制度의 改革	63
④ 專門企業 육성과 聯合體 추진	64

⑤ 基本建設 投資를 정부출자에서 은행유자로 전환	64
⑥ 經營의 多角化 장려와 個體經濟 허용	65
⑦ 對外貿易 관리체제의 개혁	66
⑧ 價格管理體제의 개혁	69
第3節 동구제국의 경제개혁	71
3.1 經濟改革의 背景	71
3.2 유고의 新經濟管理制	73
3.3 헝가리의 경제관리체제	73
IV. 各국 經濟의 問題點과 展望	75
第1節 소련경제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75
1.1 경제개혁의 영향	75
1.2 70년대 후반이후의 成長率 純化추세	77
1.3 集約的 成長政策으로의 轉換과 限界	79
1.4 소련경제의 당면과제	82
第2節 中共經濟의 당면과제	83
2.1 經濟改革의 成果 및 문제점	83
2.2 對外開放政策의 문제점	84
2.3 右旋回 路線의 限界	86

I. 序

經濟의 發展過程은 生産手段을 개인소유로 하느냐 혹은 공동소유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經濟活動에 관한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느냐 혹은 개개의 의사결정을 통합하여 집합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두 극단적인 經濟體制를 놓고 볼 때 어떤 체제이건간에 人類의 經濟的 福祉나 厚生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경우는 없었고, 이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革命까지도 수반하여 오면서 이 체제들은 끊임없는 비판, 수정 및 도전을 받아왔다.

따라서 理想的인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나 理想的인 社會主義 中央計劃 經濟體制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理想的인 體制를 대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 그런데 근래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産業革命直後에 고조되었던 自由放任主義的 資本主義體制나 블레비키 革命直後의 完全配給制의 戰時 共產主義體制는 그 兩性的이 점차적으로 퇴색하여, 社會主義體制는 社會主義體制대로 度數가 높은 市場社會主義 經濟體制로, 그리고 資本主義體制는 資本主義體制대로 政府의 「計劃化 程度」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資本主義國家들은 1930년대초의 大恐慌以後 財政規模의 적극적인 擴大傾向을 보여옴으로써 국가가 經濟的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상대적 비중을 크게 해오면서 資本主義體制內에서 社會主義的 要因의 생성이 일률적으로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社會主義體制內에서의 資本主義的 要因의 생성

추세는 순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련의 경우 1921년 戰時共產主義體制의 실패를 자인한 레닌은 新經濟政策(New Economic - Policy)을 채택함으로써 一部 資本主義的 機能을 회복시켰으나, 그 이후 스탈린에 의하여 집행된 集産化는 다시 經濟的인 社會主義的 經濟建設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국면을 완전히 일소시키게 되었고, 또다시 1960年代의 소위 「후르시초프 改革」(Khrushichov Reform)에 의한 意思決定의 分散化와 1960年 中葉의 「리베르만思想」(Libermannism)¹⁾은 剩餘라는 명목으로 자본의 要素價格인 利潤의 개념을 社會主義的 經濟運營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價與金에 의한 「인센티브」制度도 또한 반영시키기에 이르렀으며, 1970年代의 연합체 조직에 의한 産業構造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는 만성적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1979年 브레즈네프는 경제개발을 위한 행정구조 개혁이라는 새로운 포괄적 노력도 시도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지도층내의 지나친 고령화에 따른 승계문제로 개혁에 대한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의지가 소련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發展過程에서 政治的 리더십의 能動的인 役割이 강조되고 經濟的 改革이 부단히 시도되는 순환적인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生産力의 발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生産關係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註 1) Robert Campbell, "Economic Reform in the U.S.S.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VIII, No. 2 (May, 1968) pp 547 ~ 558

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할때 필연적인 路線鬭
爭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제이념적 갈등은 부단한 시행착오
적 개혁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社會主義의 經濟
發展過程은 開發政策면에서 볼 때, 革命的 體制段階와 保守的
體制段階의 2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²⁾, 일반적으로 社會主義革
命을 주도한 지도자가 생존하며 집권하는 동안, 重工業分野의 수평
적이며 양적인 擴大를 통하여 높은 經濟成長이 지속되는 경우 또
는 配給制度를 통하여 궁핍화 저축이나 강제노동 동원이 가능한 동
안은 前者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도자가 사망하거
나 실권한 경우, 중공업 분야의 자본확대가 종료되어 더 이상의 資
本深化가 곤란한 경우, 또는 폐쇄사회에 대해 더 이상 억압을 강
화 할 수 없고 오히려 완화해야 할 경우에 도달하게 되면 後者
의 보수적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소련
에서는 스탈린 사망을 전후한 1950년대까지, 그리고 중공에서는 毛
澤東 사망을 전후한 1970년대 초까지가 혁명체제기에 해당되며,
北韓과 쿠바는 아직까지도 혁명체제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社會主義諸國의 經濟
改革이 대두되게 된 背景을 고찰하여 보고, 蘇聯 및 中共을 중심
으로 한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發展過程과, 이 과정에서 실시된 經
濟改革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들 국가들이 당면한 經濟問題點과 展望을 제시하였다.

註 2) The Economist "Russia in the 1980s", 1979.12.29.pp. 31 ~ 34.

II. 社會主義國家에서의 經濟改革의 背景

완전한 의미에서의 共產主義 經濟體制는 命令型 經濟體制 (Command - type economy system) 를 의미한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해지면서 中央集權的 計劃機構가 이를 모두 획일적으로 집행하여 나간다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20 ~ 30 年代의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經濟計算論爭에서는 社會主義體制下에서의 經濟效率性 (economic efficiency) 또는 資源配分의 最適正性 (optimal resource allocation) 을 中心으로 그 理想的 可能性과 現實性에 관한 찬반의 엇갈림을 보여왔고³⁾, 1960 年代에 접어들면서는 命令型 經濟體制에 있어서도 意思決定을 분산하면서 最適正狀態가 달성될 수 있음이 이론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反復的 計算過程을 통하여 最適正狀態로 收斂되는 것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론적인 추세가 어떠한지간에 현실적으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는 계획과 명령 (Plan & Direction) 에 입각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부재한 가운데 강제성에 의하여 지탱됨에 따라, 經濟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복잡화되면서, 그리고 대외적 교류의 확대와 광범위한 접촉으로 인한 知性이 계발되

註 3) Ludwig Von Mises, "Economic Calculation in Socialism,"(1922) from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1, Oskar Lange, &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8).

4) J. Kornari and T. Liptak, "Two-Level Planning," *Econometrica* Vol. 33. No. 1 (Jan 1965).

면서 점차적으로 社會主義는 인센티브 不在의 한계와 폐쇄사회의 한계라는 이중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社會主義의 經濟改革은, 중앙집권적 계획과 명령아래 資本財 産業中心의 군수산업 건설을 강행하고 있던 체제를 市場機構의 운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厚生福祉를 증진시키는 輕工業中心의 消費材 産業建設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資源配分에 있어서의 價格構造와 經濟活動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주도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에로의 전환과정이 곧 社會主義에서의 經濟改革인 것이다.

이제 이와같은 특징을 가진 社會主義의 經濟改革이 태동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 1절 社會主義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과 脫스탈린화

마르크스에 의하면 社會主義 革命을 추진하여 사회주의적 발전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生産力이 고도로 발전하여 기존의 資本主義的 生産關係⁵⁾의 矛盾이 첨예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社會主義중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生産力이 고도로 발전한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진 국가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소련의 경우 1917년 社會主義革命이 성공했을 당시 결코 성숙된 生産力을 示現한 상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913년 공업, 상업 및 수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9

註 5) 여기서 Marx가 사용하는 生産關係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사유재산의 소유관계 (Eigentumsverhältnisse)를 말한다.

백만명으로서 총인구에 대한 비중이 겨우 17분의 1에 불과한 상태로서⁶⁾, 工業生産은 베제르부르크,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지역의 돈바스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의 바쿠와 같은 소수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東歐국가들을 포함한 中共이나 北韓과 같은 국가들도 2차대전으로 야기된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정에 의한 社會主義的 轉換이 이루어졌지 결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歷史發展의 法則論」에 상응하는 社會主義的 轉換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轉換方式은 生産力의 발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生産關係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發展過程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능동적인 역할에 따라 經濟的 改革이 부단히 시도되는 보편적인 현상을 야기시키게 된 것이다⁷⁾.

그리고 원천적으로 社會主義가 가장 성공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 社會主義가 탄생되었다는 결합을 갖고 출발한 社會主義 諸國에서는 經濟的 貧困이 政治的 自由를 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독재가 可能하였고, 그 결과 강력한 計劃經濟와 全民所有制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그 반발이 점차 현재화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위적 피라미드 (The Enormous Authoritarian Pyramid)에 의한 合理主義를 경시한 강제적이고 무리한 목표는 오히려 Creativity만 상실케 함으로써 非能率과 浪費만을 조

註 6) David A. Dyker, The Soviet Economy, Crosby Lockwood Staples (London, 1979), p.1.

7) 安錫教, 「中·蘇의 經濟的 理念論爭」, 「中蘇研究」(제 8 권 2 호 1984 여름호) p.185.

장시키게 되었던 것이다⁸⁾.

대체로,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發展의 초기단계에서 단행하여야 할 최대의 과제는 반 봉건적 혹은 초기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社會主義化시키는 작업이었다. 소련의 경우 이 작업이 이미 1920년대 부터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戰後 10여년에 걸쳐 거의 이루어졌다. 中共의 경우 농업 및 상공업부문에 生産關係가 사회주의적으로 전환된 것은 1956년, 北韓의 경우 1958년, 그리고 東歐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업은 1950년대 말에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高度의 중앙관료체제 (Contral Bureaucratic System)에 의한 物的均衡方式이나 高率의 資本蓄積에 의한 증화학 우선주의적 産業化 戰略등은 經濟의 管理體制 면에서 스탈린주의적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脫스탈린주의적 改革政策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즉 유고와 헝가리를 비롯한 국가들이 도입한 일련의 개혁조건들은, 經濟計劃의 分權化, 企業成果 指標의 수정, 상품화폐의 관계나, 價値의 法則 (law of valve)에 입각한 價格體系의 수립 등과 같은 社會市場經濟 (Social market Economy)적 요인들을 도입하여 추진된 것이다.

第2節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危機

經濟規模가 작았던 초기발전 단계, 즉 産業建設단계에 있어서는 중

註 8) 辛昇哲, 「蘇聯의 中長期經濟改革의 內容과 展望」, 漢陽大 中蘇研究所 叢 36 차 정기연구발표회, p.4.

양계획경제가 성공적이었으나, 經濟規模가 확대되고 産業構造가 복잡화되어 가는 후기 발전단계, 즉 産業調整段階에 있어서는 오히려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는 効率的 配分을 위한 市場價格의 不在現象과 投資收益의 극대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利潤基準의 결여가 社會主義體制에 내재하는 모순으로서 공급측면에서의 인센티브 부재에 의한 성장의 한계와 수요측면에서의 소비재 생산억제에 의한 체제유지의 한계가 대두되었다⁹⁾. 즉, 명령과 통제를 중핵으로 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①강제적인 계획수립, ②높은 諸目標의 설정, ③특정 부문에의 집중적인 강공전략, ④최소한도의 消費財 生産, ⑤평생의 생활보장이라는 5대 지주로 지탱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각 지주는 그 스스로의 모순을 유발시킴으로써 社會主義經濟體制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참조>

첫째, 강제적으로 짜여지던 계획은 정치성을 띤 타협적으로 짜여지는 계획 (Politicized planning) 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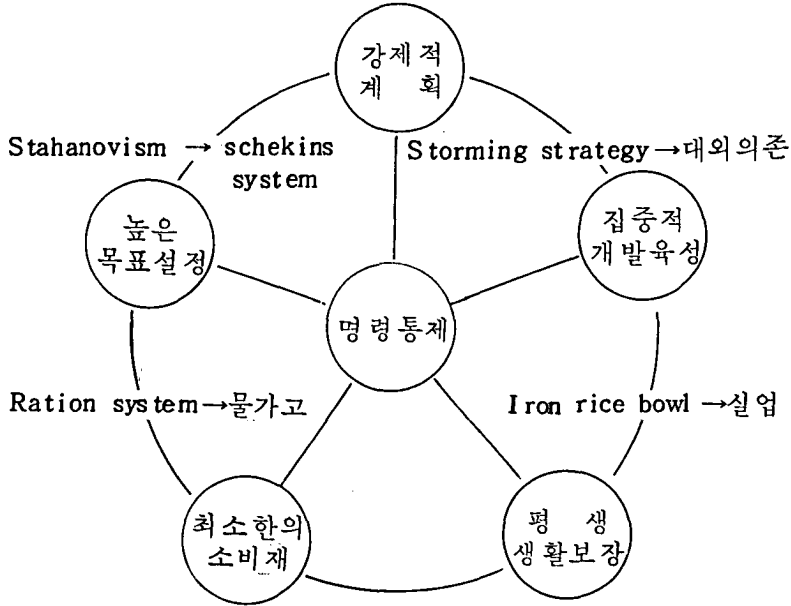
註 9) 辛昇哲,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經濟改革” 「中蘇研究」 가을호 (제 6 권, 제 3 호), (漢大中蘇研究所, 1982). pp.115 ~ 151.

10) “The Stalled Soviet Economy”, Business Week, 1981. 1019, pp.92 ~ 97.

< 表 1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지주와 그 모순

Forced draft → Politicized planning



둘째, 스타하노비즘과 같은 강제적 수탈을 위한 높은 목표는 스킨노 시스템의 不認定과 같은 달성이 용이한 목표로 하향조정 되어가고 있다.

셋째, 강공전략 (Storming Strategy) 적이던 ' R & D ' 활동은 서방으로부터의 도입이나 산업스파이를 통한 절취활동으로 전락하고 있다.

넷째, 생필품의 배급제도를 통한 최저 생존선상의 안정된 생활은 消費財 부족으로 인한 암거래와 밀수행위로 높은 물가고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생활로 탈바꿈을 하였다.

다섯째, 아이언 라이스 볼 (Iron Rice Bowl) 과 같은 평생직장보장이 라는 사회주의적 완전고용 상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질이 야기됨에 따라 새로운 실업자군이 형성됨으로서 자본주의적 과소고용 상태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社會主義體制 내부에도 높은 물가와 많은 失業이 발

생 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的 스태그플레이션 (Socialist Stagfl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높은 모험과 높은 보상 (High-risk, High-reward)을 추구하던 혁명적 체제 (revolutionary System)로부터 무모험, 무보상 (No-risk, No-reward) 이라는 안정을 회구하는 보수체제 (Conservative System)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들은 이상과 같은 경제적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인센티브 부재현상을 私有개념의 부분적 도입으로 재현시키며,

둘째, 강제적 계획의 부작용과 비능률을 부분적 시장기구의 도입으로 보완하며,

셋째, 억압된 생존선상의 빈곤을 소비재 생산의 증대를 통하여 완화하려는 대책 등이다.

第 3 節 蘇聯의 經濟改革의 必要性

蘇聯 經濟體制의 基本性格은, 資本主義와는 달리 경쟁이 배제된 국가적인 독점경제체제이며, 국가계획위원회 (GOSPLAN: The State Planning Committee)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어 집행되는 통제경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소련의 경제구조는 ①경제의 중앙통제, ②계획이 언제나 기업의 적정생산규모를 초과하는 초과공급계획, ③革新에 대한 동기결여, ④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官定'가격 또는 '不均衡'가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60년대이후 계속되고 있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勞動力 供給의 부족, 資本財 効率性的 감소, 農業의 낙후성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經濟의 低成長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低成長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련의 중앙통제적 경제체제 특유의 인센티브 부족에서 야기되는 非能率과 技術革新의 둔화 및 서방과의 군비경쟁에 따른 지나친 국방비 지출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은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첫번째 경제개혁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당 정치국내 산업, 경제전문가인 코시긴에 의해 주도되어 소련경제에 利潤制度를 도모하였지만, 改革이 갖고있는 근본적인 한계성에 의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뒤 1973년이래 경제전반의 構造的 非能率 제거에 중점을 둔 産業構造 전반을 재편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¹¹⁾. 이같이 시행되어 온 소련의 經濟改革은 다음과 같은 소련경제체제내의 構造的 問題點에서 출발한 것으로써, 經濟改革의 必要性 및 背景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1 經濟成長率의 純化

소련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초로 戰略産業에 資本과 資源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1960년대 초반까지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여왔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이래 성

註 11) 安澤源, 「소련 경제의 문제점과 개혁운동(I): 소련경제의 구조」, 「中蘇研究」(9권 1호, 1985 봄), p.92.

장률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고. 1982년 국민총생산액 성장률은 1.5%에 불과하다 <表 2 참조>

<表 2> 소련의 국민총생산액 성장률

시 기	성 장 율
1950년대	6%
1960년대	5%
1970년대	4%미만
1980년대	1.5% (추정치)

資料 : U. S. Department of State, Background Notes: USSR (1981). p.7.

이와같이 소련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²⁾.

첫째, 1960년대이래 현저한 出生率의 감소에 따른 勞動力 供給의 不足이다.

둘째, 1970년대의 석유를 비롯한 資源價格의 昂등과 채굴비 상승 및 質의 저하는 資源의 집중투입에 의한 성장률 향상을 비효과적으로 만들었다.

셋째, 지나친 資源投入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效率性이 감소되는데 특히 技術의 落後性으로 인하여 資本投資의 效率性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註 12) Holland Hunter, "Summary Observations and Reflections", Holland Hunter ed., The Future of the Soviet Economy: 1978 ~ 85 (Boulder, Colorado: West view Press 1978). pp. 168 ~ 169.

네째, 지속적인 農業의 低生産性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율은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다섯째, 서방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심각한 貿易不均衡과 소련의 석유생산량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따른 對外貿易의 침체이다.

3.2 經濟體制의 全般的인 非効率性

1960년대와 70년대의 成長率 저하는, 生産要素의 불합리한 결합 뿐만 아니라, 非能率的인 計劃經濟에 의해 더욱 악화되어 왔다. 즉, 소련경제는, 건설공사의 설계잘못 및 산만성, 지연등에서 오는 資本投資의 낭비 → 유희기계설비의 증가 → 生産設備의 낮은 稼動率 → 人的資源의 非効率的 운영 → 勞動力의 이동 → 技術吸收에 대한 동기 결여 등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경제전반에 걸친 非能率을 야기시키게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원료공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산업생산들의 지나친 원자재 저장행위와 生産要素간의 비효율적 결합 뿐만 아니라, 지나친 中央集權化, 경직된 행정체계와 타성적이며 독창성을 결여한 관료주의라는 經濟體制 자체의 요소들도 非能率을 촉진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計劃經濟體制는 1960년대 이래 소련경제가 당면한 質的開發(intensive development)과 상충되는 개발양식이 되었던 것이다¹³⁾.

3.3 科學技術政策의 不合利性

대부분의 소련 경영자들은 創意的인 企業家들로서 훈련되어 있기

註 13) George R. Feiwel,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s in the Soviet Union," Donald R. Kelley ed., Soviet politics in the Brezhev Era (New York: Praeger, 1980). pp.73 ~ 74.

보다는 生産目標 달성에 충실하도록 격려되고 있으며, 과학자나 산업디자이너들에게는 그들의 창안물을 직접 생산하도록 이끄는 物質的 動機나 刺戟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소련내 生産者市場의 資金不足과 혼란체계의 硬直性도 새로운 技術의 供給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技術革新에 대한 需要는, 生産者들 보다는 行政的 必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의 개발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科學. 技術委員會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生産者들로 하여금 技術革新에 대한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르게 하기위한 방편으로는 해마다 도입해야 할 새로운 기계의 品目を 할당해 주거나 이에 의해서 생산되는 品目에 대한 價格策定을 높게 보증해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대부분 팔리게 되어있는 소련경제의 生産者市場에서 이같은 정부의 가격보증은,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내용이 없거나 결만 번지르하게 그 형태나 작업과정만 바꾸는 엉터리 技術革新을 유도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론적으로 소련 産業體에 있어서 技術革新이란 장래가 불확실하고 利益도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¹⁴⁾.

한편, 소련의 科學技術의 組織上的 문제도, 科學技術活動의 不합利性을 안고 있는데, 技術革新의 창안자와 실제 사용자간을 분리시키고 있는 機構 및 制度上的 결함을 들 수 있다. 즉, 소련에서는 기초연구나 높은 우선순위의 응용과학 연구는 소련과학원(The Aca-

註 14) Joseph S. Berliner, "The Innovation Decision in Soviet Industry" (Massachusetts: MIT press, 1976). p.490.

demy of Sciences)의 영역에 속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산업연구 및 개발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구간의 인력과 연구정보 등의 상호교류는 관계부처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행정통제 등에 의해 크게 제한된다. 이밖에도 연구업적물의 간행에 대한 제한이나 지연, 중요연구물에 대한 비밀주의, 주택문제에서 야기되는 勞動力移動의 장애, 여행의 제한, 연구물에 대한 복사와 통신기술의 저발달 등도 소련 과학기술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3.4 과다한 국방비 지출

소련은 서구의 여타국가에 비해 국가재정의 훨씬 더 큰 몫을 국방비로 지출함으로써¹⁵⁾ 서구와의 무기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과다한 국방비 지출은 자본투자 및 소비재 지출간의 不均衡的 資源配分이라는 소련경제의 전반적인 技術進步의 희생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련경제의 국방비 지출비율의 과다는 經濟成長面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무기와 군사장비의 生産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련경제 전반에

註 15) CIA는 1970년 이래 소련 국방지출비율은 소련 GNP의 11~13%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William T. Lee에 따르면, 1970년의 소련군사비 지출비율은 GNP의 13%였는데 1975년에는 14~15%로 증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CIA, Estimated Soviet Defense Spending in Rubles, 1970~75, SR 76~1012 u(May 1976), p.2: William T. Lee, "Intelligence: Some Issues of Performance", Francis P. Hoerber and William Schneider Jr, eds, Arms Men and Military Budgets: Issues for Fiscal Year (N.Y.; Crane Russak Inc, 1977). p. 289.

요긴한 기계, 기구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¹⁶⁾ 資源配分 측면에서 相互代替的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 건설부문에서 美國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경쟁을 벌였던 1958 ~ 61년 동안에 소련은 내구재, 생산재 공급에 생산확장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 가량만이 투입된 반면에, 군사장비 형태의 군사력 증가에는 40% 이상이 투입되었던 것이다¹⁷⁾.

둘째, 국방부문과 여타 경제부문간의 만성적 불균형은, 資本財의 質的 水準과 그 生産性이라는 의미에서의 成長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은 가장좋은 품질을 가진 기계장비 생산량의 약 1/3과 금속산업 생산량의 1/3을 국방부문에 투자하고 있는데¹⁸⁾, 투자량과 자원의 팽박성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경제자원에 대한 국방비의 과다지출은 민간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기계설비 대체를 방해함으로써 그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련경제에 있어서의 국방비의 과다지출은 그것이 초래하는 資源配分의 不均衡을 통하여 오늘날 소련경제에 만연되고 있는 非能率과 低生産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註 16) Stanley H. Cohn, "Economic Burden of Defense Expenditures,"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Soviet Economic Prospects for the Seventies, (June 27, 1973) p. 155

17) Michael Boretsky, "The Soviet Challenge to U.S. Machine-building,"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Dimensions of Soviet Economic Power, Hearings, 87th Congress, 2nd Session (1982). p. 105.

18) CIA, Soviet Economic Problems and Prospects, ER 77-10436 u (July 1977). p. 2

第4節 中共의 實用主義 路線의 背景

中共에 있어서도 지난 30여년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 입각한 강압적인 經濟開發政策을 추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경제적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中共經濟는 비교적 풍부한 人力과 賦存資源 그리고 광활한 대륙의 바탕위에 經濟富國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經濟水準은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공업면에서는 20년정도 농업면에서는 20년이상이 뒤떨어져 있다고 自認하고 있다¹⁹⁾. 따라서 中共은 현단계의 매우 낮은 생산수준을 제고시키고, 지금까지 크게 등한시하여 왔던 人民生活의 수준향상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經濟體制 改革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왜 中共의 社會主義經濟는 이처럼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는가?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부적합한 中共集權的 經濟管理體制를 채택 운영하여 왔다는 점이다. 즉 中共은 商品經濟가 고도로 발달한 기초위에 社會主義 國家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商品經濟가 未發達되고 生産性이 매우 낮은 기초위에 社會主義 國家를 건설하고, 제 1차 5개년계획 (1953 ~ 57)을 집행할때에 도입한 國民經濟體制 수립 방법은 고도의 中央集權的인 行政管理위주의 소련식 방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당시 국민경제는 극심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장기적 封建割據에 의한 폐쇄된 경제 상태이였기 때문에, 낙후된 경제기술 수준과 단

註 19) 金弘志, 「中共의 經濟體制 개혁」, 「中蘇研究」, (6권 1호, 1982 봄호). p. 63 ~ 64.

순한 경제구조의 상황에서는 소련식 관리방법이 전국에 산재한 財力, 物力, 技術力量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國民經濟의 신속한 회복과 156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경제건설을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中共에 있어서의 毛澤東 모델의 강행은, ①中共集權的 經濟管理 體制의 모순, ②重工業우선정책 강행의 모순 및 ③全民所有 개념에서 나온 人民公社 제도실시의 모순 등 예외없이 많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발생시키게 되었다²⁰⁾. 즉 ①中央集權的 管理體制는 經濟力과 政治權力의 集中化를 가속시킴으로써 정치적 전체주의만을 심화시켰으며,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경쟁은 오히려 계획의 경직성과 비능률성만을 확대시켜 왔다. ②重工業 우선정책의 강행은 희소한 자원의 왜곡된 편중적 배분만을 초래하였을 뿐, 국민의 經濟生活를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함으로써 내부적 불만을 고조시켜왔다. ③全民所有 개념의 人民公社는 사유개념에 강하고, 공동생활을 싫어하며, 조급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못한 中國人의 본성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비협조적이고, 체념적이며, 반항적인 인간상을 형성함으로써 中共經濟를 정체 퇴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같은 中共經濟의 모순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¹⁾ ① 中共集權的 計劃經濟體制라는 소비에트 모델과 스탈린식 개발전략 (forced drowth)이라는 빅푸시 (big push)의 모순, ② 완전고용과 식생

註 20) 辛昇哲, “中共式 實用主義 路線의 限界性” 「共產國研究」 4월호 (極東問題研究所, 1983). pp. 104 ~ 114

21) D.Gale Johnson, “Progress of Economic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2. pp. 11 ~ 27.

활보장 (Iron Rice Boul)이라는 毛澤東이념 (Maoist Ideology)의 모순, ③ 성과주의에 의하지 않는 정책과 관련된 임금제도의 모순, ④ 기업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인센티브 결여라는 모순, ⑤ 국민경제 전체적, 지역적 그리고 개별기업적 자급자족 (Self Sufficiency)이라는 모순, ⑥ 가격안정, 가격보조 및 계획된 계산가격 등의 가격 정책상의 모순 등이다.

따라서 中共의 경제조정정책에 집약된, 中共式 現代化 또는 실용주의 노선은 이와같은 구질서의 내부적인 모순의 확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經濟哲學의 수정이며, 동시에 정치우선에서 경제우선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용주의 노선의 經濟改革은 物質的 誘因의 제공과 개인간 능력차등제의 적용 및 경쟁촉진적 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며, 명분보다는 실리를 앞세워 對西方경제협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社會主義體制 그 자체의 변혁을 의미한다. 대내적으로는 ① 낙후된 산업시설, 도식화된 행정, 무기력한 인간 등 국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제거하고, ② 경제활동 특히 기업활동에 있어서 責任課業制度를 채택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며, ③ 經濟統制의 완화와 생존선상의 소비억제의 완화등 모든 통제와 억압을 경감하고, ④ 經濟的 資源과 경영상의 결정을 市場諸力 (market force)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⑤ 生産과 投資에 대한 재량권

註 21) D.Gale Johnson, "Progress of Economic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2. pp. 11 ~ 27.

부여와 임금과 이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 각종 自由化 조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이행되어 갈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① 物理的 資本(Physical Capital)뿐만 아니라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制度的 資本(institutional Capital), 管理的 資本(managerial Capital), 그리고 技術的 資本(technological Capital)도 함께 도입하며, ② 外資導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진출(The Great Leap Outward), 또는 新長征(The New Long March)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²²⁾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이상과 같은 實用主義 노선에 따른 經濟改革이, 급격한 調整強化정책을 시도함으로써, 국제적 신용의 손상, 국내 경제, 경제계의 마찰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이룩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여기서는 1980년 이후 中共이 經濟調整 強化政策을 추진하게 된 社會的 經濟的 背景이 되는 要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自然災害에 의한 食糧生産 減縮

북경당국은 1980년도에 식량생산이 3억 1천 5백 50톤에 이른다고 공식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1979년도의 3억 3천 2백 12만톤에 비하면 5%의 減産現象을 보인 것인데, 이러한 생산감축의 현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같은 식량감산에 따라 최근 중공당국은 연간 약 1천만톤에 가까운 곡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수입대상국은 美國으로서 곡물 매입량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따라서 外資의 支出은 20억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註 22) "The Great Leap Outward," Time, 1978 11/27, pp. 14~22.

23) 「人民日報」, 1980.12.26.

상황은 중공경제가 당면한 중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4.2 國家財政의 赤字增大 및 基本建設의 規模縮少

1980년 9월의 全國人民代表大會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1979년도의 결산에서 나타난 財政赤字는 170억 6천만 원이라고 하나, 1980년도에는 80억 원, 81년도에는 50억 원으로 점차 감소시킬 계획을 세운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1980년의 결산에서 나타난 赤字는 120~130억 원에 이르고 있다.²⁴⁾ 이와같은 경향은 중공지도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따라서 陳雲지도하의 초균형예산안이 새롭게 편성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1980년도의 財政赤字가 계획한 대로의 限界를 넘어서는 이유중에서 가장 중대한 요인은 基本建設投資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기본 건설의 조정이 국민경제 조정의 중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1980년도의 국가예산중 기본건설투자액은 前年度보다 5% 삭감되었으나 그밖의 다른 자금으로 투자된 기본건설 프로젝트는 대폭 증가하였다.²⁵⁾ 그 결과 全國的 投資總額은 前年度에 비해 5% 증가되었고, 中止 혹은 延期된 프로젝트는 그 투자액이 비교적 줄어들음에 따라 新의 大·中型 프로젝트에 대한 計劃投資總額은 감축된 투자액을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지방이나 특수부문에서는 중복된 프로젝트를 新규로 추진할 때가 있었고, 특히 80년도 말경부터 현재까지 建設중인 大·

註 24) 「人民日報」, 1981.2.28.

25) 「新華社」, 1981.1.29.

中型 프로젝트는 1천개에 가까운 방대한 량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大·中型 프로젝트에는 약 1천억원이상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북경당국이 부담할 수 있는 액은 절반에 불과하다. 다만 물자면에서 철강제는 필요량의 85%, 시멘트 60%, 목재 70%등만이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그 부족량을 보충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²⁶⁾

4.3 加速的인 「인플레이」현상

중공의 인플레이현상은 최근 갑자기 또는 급속히 나타난 현상이다. 1979년 12월 말의 전국의 小費物價指數는 전년도에 비해 5.8%가 상승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1980년도 상반기에 나타난 전국 도시 지역의 상승율은 13%이며, 그밖의 일부 대도시에서는 15%를 초과하였다고 한다.²⁷⁾ 이같은 인플레이 현상의 요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1977~78년의 제2차 大躍進 時期에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22건의 대형 프렌트가 수입되었으나 그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투자 해야만 하였다. 그중 1978~79년의 두해에 걸친 通貨發行高는 백 3십억원에 달하였다.

둘째, 1979년에는 農產物 買上價格의 인상과 도시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물론, 物價手當의 지급과 농민노동자의 현금 수입증가 등이 계속되었다는데도, 거기에 대응할 만한 생활 필수품의 생산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註 26) 「文耀報」, 1981. 1.29.

27) 「人民日報」, 1981. 1.28.

세째, 四人幫 추방이후 각 기업은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산발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네째, 經濟改革에 의한 기업의 自主權이 확대되어 시장기능이 다소 현실화되고, 거기에 일부기업이나 생산기관에서는 利潤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가격에 관한 균형을 어긴채 사실상의 價格引上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品質을 저하시킴으로써 부당한 利益을 취하는 경향까지 빚어 인플레이를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⁸⁾

4. 4 資源生産의 不振

최근 中共의 석유·석탄생산이 현저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公知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석유·석탄의 증산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980 년도의 실적을 보면 석유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0.3 %가 감소되었고, 석탄은 5.5 %의 감소현상을 나타냈는데 특히 1981 년도의 생산계획은 石油生産의 경우 5.8 %나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經濟調整 強化政策의 필수적 원인으로서 資源産業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을 제시하고, 증산의 새로운 대책으로서 새로운 油田과 탄광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최근 중공 남해지역에서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프랑스의 드.타르 석유회사가 1981년 2월에 有望性이 보이는 炭化水素의 징후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석유개발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보도는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註 28) 「大公報」, 1980. 4.26.

4.5 社會的 不安의 高潮

이상과 같은 經濟的인 諸問題點이 중첩된 結果, 中共에서는 최근 社會的 不安이 계속 高조되고 있다.

中共에는 현재 약 2천6백만의 失業者가 있는데,²⁹⁾ 그 중에는 文 革期間중 실직되었던 자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한 상태이며, 또한 많은 知識靑年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中央당국자는 매년 7백만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같은 失業者의 속출은 사회적 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비공식 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賃金引上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잇달아 발생한다고 한다.³⁰⁾ 이에 따라서 小平은 1980년 12월 어느 회의에서 “파업을 일으키는 노동자는 上級黨組織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공장 黨委員會는 파업문제의 핵심을 대화로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폭력적 테러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 10월에는 북경역 폭파사건이 있었고, 北京空港, 西單市場, 백화점 그밖에 上海 등 각 지방에서도 그 비슷한 사건들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중공의 현 지도 체제가 1980년도에 이르러 급속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經濟調整 強化政策을 조기 실천하려고 한 것은, 이와같은 일련의 사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中共의 經濟調整 強化政策을 추진케 한 주요 외부적 요인으

註 29) 「每日新聞」, 1981. 2. 14.

30) 「大公報」, 1981. 1. 16.

로는, 1980년 후반의 폴란드 사태를 들 수 있는데, 中共은 그에 따른 대책의 시급함을 깨닫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6 對外經濟開放의 促進 背景

이상과 같은 背景하에 進행된 經濟調整의 成果가 1984년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調整任務의 完了를 確因하고 改革이 正식으로 中心任務가 되었다. 1984年 5月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趙柴陽 總理報告에서 政府가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의 2大事業을 집중적으로 積極化하고 都市改革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하였다.³¹⁾

이 經濟改革의 새로운 단계의 特徵은, 都市와 工業面에서 종합적 단계적인 몇개의 改革을 종합 실시하여 國營기업이 상대적으로 獨立된 商品生産기업의 地位를 확립케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月 20日의 「中共中央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經濟體制改革의 方向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改革의 속도가 빨라야 할 必要性이 강조된 것은, 1979年 이후 農村에서의 改革의 진전이 都市에서의 改革을 必要로 하고 都市 工業面의 改革이 全體構想下의 給合的 推進이 요청되게 되었다는 背景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生産工學, 光섬유通信 등으로 대표되는 新技術革命이 1984年을 통해 中央指導部의 중대 관심사가 되고 이를 수용한 經濟體制, 科學技術體制, 教育體制는 빨리 改革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 짐에 따라서 1984年 4月 4個經濟特區외에 14개의 沿

註 31) 金潤煥, “中共經濟改革의 進行과 問題點”, 漢陽大 中蘇研究所 제 36 차 定期研究發表會, 1986. 5. 1.

岸港口都市가 개방된 것도 이 지대를 통해 新技術을 소화·흡수하여 內陸으로 전달케 하려는 의도가 배경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對外經濟開放은 국내에서의 經濟改革을 필요로 하고 국내의 경제개혁은 곧 經濟의 開放을 促進한다는 관계를 놓고 볼 때, 이러한 의미에서의 改革과 開放의 相互促進이 1984년에 이르러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Ⅲ. 各 國家別 經濟發展過程 및 經濟改革의 推進實態

第 1 節 蘇聯의 經濟發展 過程과 經濟改革

1 . 1 소련의 경제발전 단계

소련은 지구상에 실재하게 된 最初의 社會主義의 宗主國이며, 社會主義 發展의 Pace-Setter 또는 Guider로서 教訓的 노선을 고수하려는 保守的 性向을 띠고 있으며, 50,60,70,80 年代에 걸쳐서 대략 10年 주기로 극히 제한적인 제도의 改革을 시도하여 왔으나, 改革의 정도는 온건한 中道路線을 취하고 있다.

소련의 경제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917~21 年の 戰時 共產主義體制下에 進行된 급진적인 改革이 실패하자, 1921~ 27 年の 기간에 NEP(New Economic Policy)를 실시함으로써 經濟開發計劃을 위한 기반을 조정 한 후 1928 ~ 32 年の 1 차 5 개년 計劃이후 지금까지 12 次 5 個年 計劃을 수행 하고 있다.³²⁾

1 次~ 4 次(1946 ~ 1960)까지는 스탈린 시대로서 이 기간에 一國 社會主義 路線에 따라 revolutionary system에 입각한 경제발전과 社會主義 몰격이 形成되었고 5 次~ 7 次(1961~1965)까지는 흐르시초프 시대로서 이 기간에 物質的 빈곤의 제거라는 補完的 經濟改革으로 보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룩되자 1981 年까지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고 GNP 및 生活水準面에서 美國을 앞지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美·蘇간의 體制競爭을 선언하였다. 그후 8 次~ 10 次(1976 ~ 1980)까지는 브레즈네프 시대로서 이 기간에 몇 차례의 제

註 32) 中間에 1943 ~ 45 年の 3 년간은 2 次大戰으로 중단되었으며 현재 第 12 次計劃(1986 ~ 1990)이 진행 중이다.

한된 經濟改革이 있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보수적체제 (Conservative System)으로 전락함으로써 長期的 沈滯狀態에 빠져 들었으며, 브레즈네프 사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로 계승되면서 흐루시초프 노선을 수정하는 「21세기 청사진」 즉 「新강령」이 제시되었고 현재 각종 改革作業이 진행중에 있다.³³⁾

이제 소련의 經濟發展패턴을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4 단계, 즉 1) 戰時 共產主義時期, 2) N E P (新經濟政策期), 3) 集團化, 重工業化 및 스탈린체제, 4) 戰中과 戰後를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戰時 共產主義 時期³⁴⁾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적을 만들고 이들 적과 대결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소위 干涉戰, 國內戰時代에 돌입하였다. 1918년 8월에 창설된 赤軍 보급임시위원회가 공업동원을 담당하고 최고 국민경제회의의 군사공급부에서 原·必·然料, 군수공업을 집약적으로 관리하게 하였으며, 科學技術部門에서는 부르조아 전문가들을 등용하였다.

혁명정부는, ① 1918년 여름부터 공업분야에 대해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國有化政策을 추진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곡물징발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대와 공장등에 공급하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농산물의 공출을 의무화하는 등 農村이 과중한 부담을 담당하게 되었다. ② 均等化의 기본원칙하에 土地改革

註 33) 辛昇哲, 「蘇聯의 中長期 經濟改革의 內容과 展望」, 1986. 5. 1. pp. 1 ~ 2.

34) A. Nove,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London, 1969. Chap. 3. 4.

을 실시하였으나, 경영계층의 영세화와 평준화에 의해 농업의 생산력은 최악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1921년에 대기근이 발생하였다. ③ 이 시기에 특히 農業部門에서는 集團農場化를 추진함으로써 1920년에 콜호즈(협동조합농장) 1만개, 농가 13만호, 경지 1억 1,782만 2,500아르의 규모가 되었으며, 농가호수는 전체의 0.5%라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④ 공산주의 토요노동이라는 무보수의 勞動運動을 전개하였는데, 內戰時期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전쟁에 동원되어 노동자계층 내부에서 기술전달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內戰時期에 악성인플레이가 발생함에 따라 市場에서는 상품·화폐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 現物交換이 이루어졌고, 공업노동자의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한편, 모든 물자를 집권적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그 결과 共產主義者들은 무화폐, 무시장, 현물교환등의 사회창조를 자본주의의 폐기라고 보고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노선에 따른 전환작업이라고 하여 환영하였다.

2) 新經濟政策期(NEP)

戰時共產主義가 경직된 상태를 露骨하게 되자, 현물교환 체계의 형성과 함께 집권적, 행정적 방법을 통해 대가없이 농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市場經濟의復古를 이론적 축으로 하는 NEP(신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工業部門의 목표는 공업생산력을 戰前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과 국유부문의 관리제 기능을 발휘 시키는데 있는데, 국유부

문중 생산재 부문에서의 생산고는 95% 소비재 부문에서의 생산고는 87~88%을 각각 이룩하였다. 그러나 NEP 후반기에 와서 확대재산을 위한 고정자본의 갱신이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25년 제 14차 당대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工業企業이 國有化된 것은 확실하나 인간관계, 노동조직, 노임지불형태, 시장지향 노동 등에서는 아직 충분히 社會主義的 企業이 되어있지 않았다. 한편 NEP 시기의 공업부문에서는 종래 전통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공업인 구스따리가 존재하였는데 市場復活이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구스따리공업은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原資材의 수요면에서 國有企業을 위협할만큼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NEP 시기 특유의 상품경제원리의 부활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工業管理 형태면에서는, 종래 비경제성이 지적된 企業單位가 經濟計算制 확립을 목표로하여 국유기업 생산물의 자유판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管理部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한편, 國有工業이 자유시장에서 매매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영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경영단위로서 ทรั스트(trust)가 성립하였다.³⁵⁾ ทรั스트화는 급격히 진전되어 1922년 9월에 그 규모는 430개로서 4,144개의 기업에 動勞者는 97만 7천명으로 확대된 결과, ทรั스트 관리부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성장함으로써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에 단체협약이 부활되었다.

雇傭면에서는 戰時共產主義 시기에 전반적인 勞動의무제가 완화된 '노동의무해제'가 진행되는 대신, 보통고용 해고수속이 제도화

註 35) 監川伴明, 「ネシブの導入と労働組合」, 「歴史學研究」제 444호, 1977. p. 2.

되었으며 국영기업에서도 자유계약에 의한 고용형태가 확립되었다. 그 원인은 國內戰과정에서 일시에 530 만명의 赤軍이 제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전시체제하에 750 만명이던 것이 450 만명 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했던 勞動市場이 過剩상태로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농촌인구가 과잉상태에 이르게 되자 농민들은 잡역, 건설, 목재운반, 탄광등의 각 부문에서 유출되었는데, 그 수가 1924 년에 160 만명, 1926 년에 300 만명, 그리고 1929 년에 434 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P 시기에 등록된 완전실업자는 100 만명 수준에 이르게 되어 경제가 회복된 시기에서도 상당한 자유노동력으로 잔존하고 있었다.

賃金면에서는, 균등한 生活保障的 支給에서 生産性과 결부한 임금으로 또 임금지급의 주체가 勞動組合에서 企業으로 바뀌는 큰 전환을 보이게 되었다. 이같은 노동자 자주관리형태는, 企業 공장단위라는 분산성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산당 방침과 모순된 면이 많았다.

3) 集團化 重工業化의 스탈린 체제시기

工業化과정의 진행되는 동안 黨內권력투쟁에서 좌파인 스탈린은 자기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강권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즉 1928 년 초 黨정치국 지령형태로 형법 107 조를 적용하여 가택수색 체포등 행정적, 사법적 방법을 적용하는 위압하에 곡물조달을 추진하고, NEP 시기에 도시와 농촌간을 규제해오던 시장적 관계를 매개로 하는 조달방식을 포기하였다. 이같은 강권적 방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곡물의 조달실적을 제고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파종을 거부함으로써 次期年度에서는 그 조달이 부진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강권에 호소하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게 됨으로써 스탈린 공포정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스탈린 체제하에서의 곡물조달량은 실 수확고의 40 ~ 50 %에 달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무상이었으나 극히 低價이었다. 정부는 이렇게 조달한 곡물을 일정한 가격으로 공장과 기업에 배급하여 축적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의 강권에 의한 農業集團化의 추진은 정부의 재생산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고, 농민자신의 재생산은 개인부업 경영을 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축산, 야채 薯類 등을 생산하였다.

이상과 같은 스탈린 체제하의 특유한 축적메카니즘을 통하여 급템포로 성장한 重工業部門은 철강, 석유, 석탄을 포함한 工業 총생산고의 지수가 1917년을 1로 기준하는 경우, 1928년에 1.8, 1932년에 3.7, 1937년에 8.2, 1940년 12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리고 工業生産中 生産財와 消費財와의 비율은 1928년에 4.6에서 1940년에 6.4로 역전되었다.

한편 位階制의 확립에 있어서 重工業化를 지원한 노동력은 공업노동자 계급내에서 재생산, 보충되는 동시에 농촌에서 다량으로 공급됨으로써,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우대, 물질적 자극 부여 등에 의해 전문가 우위노선을 취하게 되었고, 1920년대에는 넓게 전개된 교육운동효과로 인하여 소비에트적 인간이 형성되는 등의 스탈린체제가 확립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1913년에 약 19만명의 전문가수는 총노동자 1,290만명의 2%를 점했으나 1941년에는 240만명으로서 전체 3,390만명의 7%를 차지함으로써 공업노동자내에 엘리트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교육체제가 확립되고 전문적인 숙련자격을 가진 유자격 노동이 국가수준에서 확정됨으로써 소련의 노동체제는 스탈린체제하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노동체제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격차문제가 남아있고, 새로운 교육체제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 무자격, 미숙련층의 청소년 노동력은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공산주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평등에 技術요소가 중대한 방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스탈린체제하에서 중화학공업이 진전되면서 점차 복잡한 위계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한편 스탈린체제하에 성립한 計劃經濟는 中央集權的 指令的 經濟로서, 제1차5개년 계획(1946 ~ 1950)에서 國民所得에 대한 財政의 비율은 30%에서 40%에서 달하고, 그중 국민경제에 직접 투자되는 자금은 小額이었다.

결론적으로 스탈린형 경제의 특징은, 農業生産에서는 개인부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하는 반면, 産業構造는 가일층 重化學工業으로 편중되고 위계적 직종계층구조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4) 戰中과 戰後期

2차대전중에 소련의 경제는, 콜호즈에서 생산한 곡물의 과반을 무상조달하는 구조, 중앙집권적, 지령적 계획화 방식에 의한 스탈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러나 1953년의 스탈린 사망후 1956년부터 스탈린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고, 흐르시쇼프는 기존 중공업기반을 확립한 후 소비재와 농산물의 增産을 도모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대되는 소비재와 축산물 및 농산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을 무상으로 조달하던 것을 농산물 대가를 보증해주는 등의 價格 持支政策을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현재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스탈린시기의 蓄積構造로서의 價直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하던 것이 흐루시초프시기의 蓄積構造는 공업에서 농업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시기의 농업은 수탈대상의 농업이 아니라 보호대상의 농업이었다.

1965년에 利潤制를 도입한 흐르시초프期의 經濟改革은 東歐제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게 되었고 체코사태를 계기로 하여 좌절되자 소련의 경제체제는 다시 집권적 지령적 관리체제로 환원되었다.

1. 2 소련경제의 문제점

흐르시초프시기에 소련은 거대한 농업국가에서 도시화, 산업화한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露모하게 되었다.

첫째, 스탈린期부터 대규모투자를 해오던 전력, 석유, 석탄, 철강, 시멘트등의 生産財部門의 생산고는 흐르시초프시기의 약 10년간 미국수준에 접근하였으나, 消費財의 양과 질에서는 歐美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 1982년 현재 소련의 국민총생산은 미국 국민총생산의 절반 가량이 되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이탈리아 수준보다도 낮으며 1인당 소비수준은 선진공업국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브레즈네프 시기에도, 소련의 1인당 소비수준은 2배가량 높아졌으나, 미국 1인당 소비의 3/4밖에 안되었다. 소련 인구의 6%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1인당 고기소비량은 1년에 128 파운드로서 미국수준의 48%밖에 안되는 만성적인 소비

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고도의 공업화 도시화를 추구한 결과 資源의 애로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석탄의 50%,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30% 등이 우랄산맥 以東에서 조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資源原價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세째, 공업화, 도시화의 추진에 따라 농업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농산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대량의 곡물을 수입하게 되었고, 농업부문에서는 寒波등 자연조건의 제약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력이 도시로 흡수되어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技術革新에 의한 生産性 向上이 요구되는데, 경제개혁이 좌절된 후의 소련 경제체제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문제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브레즈네프시기에서도 농업부문에 대한 방대한 자본투자정책이 강조되었지만 농업생산은 그리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979년 7월 당중앙위원회총회에서 브레즈네프는 제 11차 5개년계획 시기에서의 농업부문 투자를 제 10차 5개년계획기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⁶⁾

네째, 소련경제는 제 2차대전 후 연평균 성장률 10% 수준을 기록하면서, 1950년대 전반기를 피크로 상승하였다가 그후 계속 저하되어 1960년대 후반기에 약간 상승세를 보였고 1970년대에 와서는 다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소련경제의 저성장추세는 제 10차 5개년계획(1976~80년)의 경제실적 및 제 11차 5개년계획(1981~85년)의 목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表 3 참조> 1979

註 36) 「쁘라브다」지, 1978. 7. 4.

년도 소련경제성장률은 공업생산 3.4%, 농업생산 4.0% 등으로
 평시의 소련경제사상 최저인 2%를 기록했다. 그러나 잠재적 인플
 레요인이나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³⁷⁾

<表 3 > 소련의 경제성장

연 도	국 민 소 득	공 업 생 산	농 업 생 산
제 5 차 5 개 년 계획 (1951 ~ 55)	11.4	13.2	4.2
// 6 // (1956 ~ 60)	9.2	10.4	6.0
// 7 // (1961 ~ 65)	6.5	8.6	2.6
// 8 // (1966 ~ 70)	7.8	8.5	4.0
// 9 // (1971 ~ 75)	5.7	7.4	1.3
1976	5.0	4.8	4.1
1977	3.5	5.3	3.0
1978	4.0	4.8	4.0
1979	2.0	3.4	- 4.0
1980	3.8	3.6	- 1.0
제 10 차 5 개 년 계획 (1976 ~ 80)	3.7	4.7	0.8
// 11 // (1981 ~ 85)	3.4 ~ 3.7	4.7 ~ 5.1	2.3 ~ 2.7

資料 : 「쁘라브다」지 1981년 1월 24일자

註 37) 金應烈, “「經濟發展패턴에 있어서 中共과 蘇聯의 비교」”,
 中蘇研究, (7권 4호, 1983 겨울), pp. 153 ~ 154.

이 같이 소련경제 성장력감소의 장기적 구조적 요인은 투자력 감퇴와 노동력의 부족이다. 소련경제가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한 요인은 풍부한 노동력과 거액의 투자력 때문이었다. 브레즈네프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 후반인 제 8차 5개년 계획에서는 5년간에 계획목표가 47%인데 대해 그 실적이 44%가 되어 평균 7.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 전반인 제 9차 5개년 계획에서는 5년간에 계획 목표가 39.6%인데 대해 그 실적이 40.2%가 되어 연평균 6.9%를 기록함으로써 거의 계획목표대로 달성되었다. 제 10차 5개년 계획기는 제 9차 5개년 계획기의 「소비생산재 우선주의」를 억제하고 「중공업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준비확장을 전개하게 됨에 따라 國家投資의 실적치는 약간 상회하였으나 공업성장율은 5년간의 계획치 36%에 비해 실적은 24.3%로 약간 하회하고 있다. 제 11차 5개년 계획기의 총투자 증가율이 12~15%인데 비해 국민소득 성장율은 18~2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경제효율의 상승 및 기술진보의 촉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달성 할 수가 없었다. 한편 소련의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공업부문의 성장을 감소추세는, 자본과 노동력의 부족이외에 원자재가격의 앙등, 경직된 행정가격 시스템과 노동생산성의 저하 및 기술도입의 곤란 등의 제약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다섯째, 소련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제도는 물자의 유통단계에서의 경직성때문에 財貨의 수급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가격의 앙등이나 노동자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연 3.5%~4%의 코스트푸쉬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을 일으키

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 생산설비 갱신을 주도 할 수가 없으므로 경제효율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1965년 계획관리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습득기간에는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구식 생산설비와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 24차 당대회에서 코시긴 수상은 서방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방측 기술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실적이 부진하였다.

1.3 소련 經濟改革의 변천과정과 내용

소련 지도층은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經濟改革을 시도해왔다. 이같은 개혁들은 만성적인 경제문제 개선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의 개선책을 제시한것은 사실이다.³⁸⁾ 본 장에서는 6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개혁의 내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960년대의 經濟改革

소련의 최초의 주요한 經濟改革은 1965년 9월 27~29일간 열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수상 코시킨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³⁹⁾ 이에 따라 구체화된 경제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企業에 대한 自律性을 제

註 38) 安澤源, 「소련경제의 문제점과 개혁운동(Ⅱ)」, p. 127.

39) Pravda, Sept. 28. 1965.

고함으로써, 企業經營者는 임금책정에 있어서 시간 노동자 이외의 고급노동자 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약생산에 있어서 이전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개혁 지침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었던 기업의 資本投資 결정에 있어서도, 각 기업체로 하여금 이윤의 사내유보 및 감가상각등을 통해 생산촉진기금(fund for the growth of production)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기업의 現代化, 自動化 및 기타 자본투자요구사업에 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이같은 생산촉진기금은 조만간 사업전반에 걸쳐서 국가 자본투자의 약 20%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졌다.⁴⁰⁾

둘째, 소련경제의 계획목표량은 기업경영자에 있어서 그대로 실적지표로 반영되어 왔다. 그런데 개혁지침에서는 상부기관에 의해 책정된 이같은 계획목표량을 낮추었을 뿐 아니라 그 운영과 목표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변화시킴으로써 實績指標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적지표와 관련하여 기업체 보너스 운영에도 개혁이 시도되었는데 보너스는 기존에는 생산의 계획 할당량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 지급했던 것을 개혁지침하에서는 이같은 생산량위주의 실적지표에서 벗어나서 판매와 이윤목표량의 실적에 따르도록 바뀌었다. 또한 새로운 생산품 도입에 대한 보상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기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주택자금, 탁아소 등에 대한 자금지원절차를 바꿈으로써 실적동기를 자극시키기 위한 시도를 단행했던 것이다.

註 40) Eko, No. 47 (Nov. 1965), p. 10.

세제, 개혁지침에는 財政 및 價格政策에 관한 企業體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① 企業體 財政에 관하여는, 이전의 기업의 신규투자는 대부분의 정부예산으로부터의 무이자 교부금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을 기업체에 대한 정부예산으로부터의 신규투자 지원 자금에 의해 기업체가 그 이윤에서 매년 일정한도에서 이를 상환토록 하였고, 예산지침은 지금까지의 무이자 교부금 제도를 대부금(loan)형식으로 바꾸어 기업체가 자신의 이윤으로부터 그 투자 수요를 점진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규정했다. ② 價格策定 政策에 관하여는, 1965년 개혁지침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본과 임대료 지불에 따른 기업체 비용상승을 고려한 가격변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혁지침의 적용대상 업체수는 점차 확대되어, 1966년 4월에는 200여개 업체가 더 추가되었으며, 코시킨은 제 23차 당대회 보고서를 통해 1967년 초까지 개혁지침 적용대상의 기업체 범위를 전체 산업노동자의 농을 포함하는 선까지 넓혀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⁴¹⁾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1965~69년 사이에 코시킨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코시킨과 그의 경제개혁에 대한 성과문제가 1969년도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브레즈네프에 의해 성토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70년대이후 정치국내의 세력다툼에서 코시킨이 브레즈네프에 의해 밀려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

註 41) Pravda, April 6, 1966. p. 15.

한 사실이다.⁴²⁾

2) 1970년대의 産業構造 개편

1960년대 후반 코시킨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뒤 이어 실시된 1970년대의 개혁은 産業部門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構造의 개편에 초점을 두고, 복잡한 소련 산업체제 및 이에 관련된 다층적 행정 위계구조를 보다 체계화, 단순화 시킴으로써 産業全般의 效率性, 生産性 및 技術革新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연합체 (associations) 조직에 의해 1975년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연합체 조직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작업이란 과거 여러 행정부서 밑에 난립되어 있었던 동종동류의 기업체 및 이에 관련된 연구개발기관을 한데 묶어 하나의 주무부서에 통합시켜 각부 (ministry) - 산업연합 (industrial association) - 생산연합 (production association) - 생산단위 (production unit 또는 enterprise)의 보다 단순한 산업연합체제를 확립시킨 것이다.⁴³⁾ 연합조직에 있어서 연합체에 통합된 각 생산업체나 연구개발기관은 자동적으로 그 독립성을 생산단체 소속 연합체만이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같은 연합체조직에 대해 소련지도층이 가졌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체조직은 하나의 대규모적 생산단위로서, 이것이 갖는 규모의

註 42) Bruce Parrot, "Soviet Technological Progress and Western Technology Transfer to the U.S.S.R; An Analysis of Soviet Attitudes," paper prepared for the office of External Research.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U.S. Department of State, July 1979, p.22.

43) George R. Feiwel,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s in the Soviet Union," Donald R. Kelley, ed., Soviet Politics in the Brezhnev Era (New York: Praeger, 1980). pp. 80 ~ 81.

경제 (economics of scale)이외에 컴퓨터기술을 비롯한 현대기술 장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아주 유리하다.

둘째, 연합체조직은 동종동류의 생산기업체들을 그 구성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생산업체의 내부사정을 파악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 따라서 그 구성기업체에 적용할 각종 생산지표(indexes)를 보다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소속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설비의 양과 질적인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개별적인 가격책정을 적절히 유도할 수 있으며, 생산의 동기 자극유인(incentives)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

세째, 연구개발기관들의 연합체조직에로의 통합은 연구개발과 생산과정간의 연계를 이룩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네째, 연합체조직은 그 지도하에 소속 생산업체들이 잠정적으로 지닐 수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고, 생산업체들 사이의 불균형적인 자산보유상태를 자체의 권유에 의해 시정하는 동시에, 원자재와 생산품의 업체간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별 생산업체가 결하기 쉬운 생산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주무부처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섯째, 연합체조직은 생산품유통을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기존의 공급기관들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외 시장 조사에 보다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섯째, 연합체조직은 노동력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출발한 연합체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개혁에 의해 뒷받침된 성장율의 정도와 산업부문의 자생적 성장율간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체조직에 의한 개혁은 산업성장율의 둔화추세를 호전시키지 못했는데, 연합체조직에 의한 구조 개편은 소련 경제구조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관료적 배타주의, 개혁에 대한 묵시적 반항, 자연 및 연합체조직 대상기업체들의 지역적 분산성 등의 限界點을 갖고 있다. 또한 소속 생산업체들의 생산품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사라든가, 장기적인 기술개발계획입안, 생산자와 고객의 연결 등 전반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에 소유업체들에 맡겨도 될 만한 지역적인 문제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실제 실시과정에서도 타 산업분야내의 동종기업체들을 배제한 채 수직적인 통합을 이룸으로써, 기업체의 집중성을 이룩하는데 限界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산업내부의 전문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1980 년대의 新經濟改革

경제조직과 관리의 개선문제는 소련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언제나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는데 소련경제가 만성적 침체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브레즈네프는 경제의 기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경제기구의 기본운용과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행정구조개혁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 들어 소련지도층은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조정과정을 개선하고, 정부경제 담당부서들의 책임중복으로 야기되는 권한의 분산화를 극복하는 한편,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우

선순위를 보다 명백히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당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하여, ① 에너지, 식량, 자원개발등의 주요 민간경제 분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들 분야에 대해 목표 중심적인 특별계획을 세운 뒤 제 11차 5개년계획(1981~85)의 주요 집행사업으로 확정시켰다. 그런데 이들 경제분야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료적 편협성을 초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요한 희생물이 되어 왔다. ② 목표달성계획의 운영을 감독하고 부서간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핵심의 내각 직속에 문제 중심의 전문위원회들을 설치했다. 소련내각수준에 설치된 이 전문위원회들은 소련지도층이 민간부문의 주요 현안 경제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전된 소련식의 목표중심 관리기법인 사업별 계획 관리기법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행정개혁은 새로운 경제개혁의 시도로서 심각한 경제적인 현안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한 소련 지도층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층이 개혁노력에 부여하고 있는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하며 전망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원인은 목표달성계획 및 위원회 조직이 행정구조내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계획의 미숙성에서 오는 기술적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혁의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소련지도층과 관료집단내의 세력경쟁 및 기득권 쟁탈이라는 관료적 분파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같은 경제개혁이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에 부딪치게 된 것은 軍-民관계에 새로운 범주의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기 때

문이다.⁴⁴⁾ 즉 민간경제부문에 전문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의 軍-産위원회의 존재는 명백히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군사부문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내각직속의 민간부문위원회들의 설립에 따라 민간부문이 자원배분을 둘러싸고 국방부문과 점진적인 경쟁관계에 놓임으로써 軍-産복합체의 활동, 특권 및 기득권을 잠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1980년대초의 행정구조개혁이 갖고 있는 限界는 자연히 소련지도층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도 새로운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따라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그가 소련의 역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경제개혁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과 권력을 보유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련의 경제개혁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교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⁵⁾ 첫째, 지금까지의 소련의 경제개혁은 그 본질적 문제보다도 계획절차의 수정이나 새로운 실적지수의 도입 등 지엽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중앙통제적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경제과정과 운영에 걸친 제한적인 개혁노력은 당연히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개혁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있어서 경제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

註 44) Pall Cocks, "Administrative Reform and Soviet Politics," US Congress, Soviet Economy in the 1980 : Problem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U.S Gov't Printing office, 1982), p. 47.

45) 安澤源, 前掲書, p. 144.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련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은 변수 즉 ① 앞으로의 소련 경제성장이 최소한의 誘因限界 (incentive threshold) 또는 그 이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 ② 새로이 승계된 지도층이 주요 기득권 집단의 파벌싸움속에서 강력한 변혁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권력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 여부, ③ 지도층이 변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회집단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층의 지도자들을 성공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제 2 절 中共經濟의 發展過程과 經濟改革

2.1 中共經濟의 發展過程⁴⁶⁾

中共經濟의 發展過程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국후 經濟再建期 (1949 ~ 52)에는 전후 경제복구와 더불어 社會主義政策을 실시하였으며 제 1 차 5개년계획기 (1953 ~ 57)에는 중공업 우선정책에 입각한 스탈린식의 불균형 경제 발전을, 제 2 차 5개년계획기 (1958 ~ 62)에는 工·農병진 발전정책에 입각한 大躍進期에서의 毛澤東식의 좌경노선적 경제발전과정을 전개하였다. 經濟調整期 (1963 ~ 65)에는 경제조정을 통한 좌경노선 수정적 경제발전을 도모하였고 제 3 차 5개년계획기 (1966 ~ 70)에는 文化革命期 (1967 ~ 69)에서의 毛澤東식 부활노선적 경제발전을, 제 4 차 5개년계획기 (1971 ~ 75)

註 46) 全應烈著, 「中共經濟」, 槿城書齋, 1981. pp. 11 ~ 29.

에는 농업기초-공업주도 발전정책에 입각한 균형성장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제 5차 5개년계획기(1976~80)에는 농업, 공업, 과학, 기술, 국방 등 4대 현대화정책을 전개하였고 제 6차 5개년계획기(1981~85)에는 공·농업 증산과 더불어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1) 經濟再建期(1949~52年)

中共은 1949년에 전국을 지배한 후, 國民經濟를 회복하기 위하여, ① 公私兼顧(사영경제를 국영기업과 같이 국가가 보호한다.), ② 勞資兩利(노동자와 자본가에게 다같이 이익을 준다), ③ 城鄉互助(도시경제와 농촌경제가 상호교류 협조한다), ④ 內外交流(외국무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등의 諸施策을 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해방전 최고 수준으로 회복 발전시켰다. 그리고 國營經濟, 合作社(협동조합)經濟, 농민 및 수공업의 개인경제, 私的 자본주의경제, 국가 자본주의 경제 등의 각종 경제의 상호분업과 협력을 통한 기본 정책 아래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개조하면서 민족혁명과 공산혁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개조과정에서 외국기업, 관료기업을 몰수하여 국가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50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1952년말까지 토지개혁의 기초공작을 완료, 自作農이 증가하였다.

2) 제 1차 5개년 계획기(1953~57년)

中共은 과도기 총노선에 따라 국민경제를 사회주의 공업화와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주의화로 개조하면서 경제개혁을 실시, 農業國에서 工業國으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업무는 공업과 농업 및 수공업등의 제부문에 있어서의 대규모 기본건설이었는데, 특히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 鞍山, 武漢, 包頭 등 3대철강 콤비나트, 長春자동차제조공장, 洛陽트랙터공장, 蘭州 石油製造工場, 기타 대형중화학공장을 건설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 계획기간중에 농업생산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공업성장은 농업의 성장보다 4배나 신장함으로써, 공업우선 방침에 따른 構造的 不均衡이 야기되었다.

3) 제 2 차 5 개년 계획기 (1958 ~ 62 년)

中共은 저개발국 공업화 과정에서 ① 社會主義 건설의 총노선, ② 人民公社, ③ 大躍進 등 독자적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취하였다.⁴⁷⁾

社會主義건설의 총노선이란, 농업과 공업, 중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근대적기술과 재래적기술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이다. 人民公社는 연속혁명노선에 따라 고급농업생산 협동조합을 연합한 대규모 대중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대중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증산운동으로서, 이 결과 생산량 증대를 가져온 반면에 품질은 저하하였으며, 노동력의 낭비, 기업생산에 있어서 경제성의 무시등 기업간, 부문간의 不均衡이 발생하였다.

4) 經濟調整期 (1963 ~ 65)

1961년 2월 中央委員會 제 9차 총회에서 수립한 심각한 국민경제의 후퇴에 대한 조정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발전을 최

註 47) 「人民日報」, 1958 . 2 . 28.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경공업, 중공업순으로 농업생산력을 집중적으로 회복시킨다. 둘째, 人民公社의 경영규모를 감소시키고 자립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동시에 自留地로 부활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셋째, 경공업부문을 부활시켜 국민의 일용필수품을 증산시킨다. 넷째, 중공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학비료공업과 농업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외의 여타 중공업부문의 투자부문을 축소시키고 양적 생산보다 품질 향상과 품종의 다양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조정 공작의 성과와 자연조건의 회복에 따라 1961년을 최저로 하여 1962년부터 점차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 따라서 경제조정기에는 中共經濟가 1961년에 극도로 후퇴하였다가 농업회복을 중심으로 하여 195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진기(1958 ~ 60년)에 불균형적으로 발달한 중공업부문을 조정함과 동시에 품질 향상 및 품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교적 취약한 부문이었던 석유화학공업 등의 건설로 1965년에는 안정, 조화된 산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5) 제 3차 5개년 계획기(1966 ~ 70년)

제 3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침은 농업기초-공업유도의 경제발전노선이며 그 목표는 근대적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을 구비한 사회주의 강국을 구축하는데 있다.⁴⁸⁾ 이 기간중 中共은 대형 철강 콤비나트, 대형 탄광과 유전건설, 제유 및 정유콤비나트, 화학콤비나트, 발전소의 추가건설 등 대규모 공업건설을 계획하였으나,

註 48) 「人民日報」, 1966. 1. 1.

1967년부터 문화혁명이 격화되어 상승세를 보이던 중공경제가 다시 후퇴하였다가, 회복추세로 보인것은 1969년부터였다. 이에 따라 1969년 이후 중공의 기본 정책은, ① 중공업의 再強化, ② 중소규모 공업의 건설추진, ③ 기업관리의 개혁, ④ 인민공사 조직의 개혁, ⑤ 소득배분법의 개정, ⑥ 국방체제의 확립 등이다.

① 중공업의 재강화는, 농업안정화를 배경으로 하여, 철강, 석탄, 기계 및 전력 등 기간산업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군수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중소규모공업의 건설추진에 의한 지방자치 경제를 확립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경제개선을 위한 농업지원 물자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② 기업관리의 개혁은 ‘鞍山철강공사법’에 의하여 기업장의 단독책임제와 노동의 물질적 자극정책을 부정함과 동시에 사상혁명의 강조와 약진정책의 부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⁴⁹⁾ 그 결과 노동임금은 성과급제에서 시간급제로 전환됨으로써, 사상적 자극주의를 강조하게 되었고, 기술자에 의한 기업관리체제에서 노동자에 의한 기업관리체제로 이행하여 관료주의를 타파하였다.

③ 인민공사조직의 변혁은 경제조정기 이후 최하부조직의 독립채산제 주제를 생산대대 혹은 公社자체로 환원함으로써, 국가의 투자와 관리제에서 公社의 투자와 관리제로 전환하였다.

④ 소득재분배법의 개정은 공업소득에서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보상급제를 폐지하고, 농업소득에서 임금을 표준점수에 기준하여 사원이 각자 신고하여 대중투의를 거쳐서 점수를 결정하는

註 49) 呂王蘭, “思想革命 帶動生產革命”, 「紅旗」, 1966. 제 13기 .

소위 대중식 배분법을 채용하였다.

⑤ 국방체제의 확립은, 핵실험의 추진, 인공위성 발사성공, 식량비축의 강화, 전략물자 확보, 생활물자의 배급제 강화, 지역적 독립경제체제의 확립, 민병대조직의 강화 등을 취하였다.

6) 제 4 차 5 개년 계획기 (1971 ~ 75년)

제 4 차 5 개년계획의 기본방침은, 3 차계획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초, 공업주도 경제발전 방식을 견지하면서, 농업발전을 토대로 한 철강, 기계, 석탄, 전력 등의 기간산업과 국방공업 등의 중앙대형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방 중소형 기업을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지역별 자급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성과는, ① 경제 분야에서의 순조로운 발전, ② 분권화의 진전, ③ 경제정책의 중점과 방향의 변화 및 ④ 대외무역의 급증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경제발전 상황을 보면, “양곡생산 중심으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농업정책이 실효를 거두었다.⁵⁰⁾ 또 線花를 비롯한 油種作物, 사탕 및 麻類 등의 경제작물도 좋은 수확고를 거두었다.

② 이 기간중 중공경제 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경영하던 대형공업을 省에 이양하여 省이 대형기업을 관리하면서 省單位 경제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경제관리상의 分權化가 증대되었다.

③ 1970 ~ 72 년 기간의 경제정책은 文革期의 과도성 즉 ‘制度無用論’, ‘經濟計算否定論’, ‘技術專門家輕視論’, ‘인민공사에서의 自留地 消論’ 등의 무정부주의적 사상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註 50) 「新華社」, 1973. 9.25.

④ 중공경제의 발전과 의욕적인 공업화정책을 반영하여 對外貿易이 급속히 증대되었다.

7) 제 5 차 5 개년 계획기 (1976 ~ 80 년)

中共의 장기적 경제발전 구상을 보면, 제 1 단계 (1966 ~ 80 년) 에서는 15 년간 “ 독립적이고 비교적 정비된 공업체제와 국민경제체제를 건설한다 ” 는 것이고, 제 2 단계 (1981 ~ 2000 년) 에서는 20 년간 “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등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를 세계선진대열에 세운다 ” 는 것이다.⁵¹⁾

따라서 제 5 차 5 개년 계획기에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등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976 년 4 월 5 일 北京天安門광장 폭동사건후 反鄧小平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鄧小平 부수상을 숙청하고 華國鋒수상, 李先念부수상 등을 중심한 온건파와 江青, 王洪文, 張春橋, 姚文元 등을 중심한 강경파가 결합하여 중공지도층을 개편하였으며, 華國鋒수상이 4人幫을 숙청하고, 1977 년 8 월 11 全大會를 개최하여 당수뇌 인사 개편, 당규약 개정, 신당규약 발표등을 행하였다. 당규약 개정은 보복금지와 민주집중제 유지 등이고 新黨規約은 毛澤東노선 견지, 20 세기내 4大現代化에 의한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 4人幫 당시와 유사한 혼란방지를 위한 민주화 등이었다.

1985 년까지의 계획목표를 개괄하면, 정부는 농업, 경공업, 중공업 순위의 경제개혁을 채정하여, 자금, 물자 및 노동력의 배분과 농

註 51) 「新華社」, 1977. 12.31.

업, 경공업의 상황에 따라 중공업 성장 규모와 템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주된 농작업에 있어서 기계화 수준을 85% 이상으로 높이고 안정수확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인구 1인당 1 畝(6.66 a) 農地 달성으로 안정된 농업기초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공업부문의 목표는 철강, 기계, 연료, 동력 등의 부문에 대한 신기술 도입으로 이 부문의 생산량을 세계선진국 수준에 접근시킴과 동시에 석유화학, 전자공업 등의 신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두었다. 그리고 농·공업의 발전에 따라 교통·운수망과 우편, 체신 전화망을 구축하고 西南, 西北, 華南, 華東, 華北, 東北 등의 6개 경제지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차 5개년 계획기간에 ① 산업구조의 불균형 시정, ② 에너지 부문의 애로타개, ③ 경제운영체제의 개혁, ④ 과학, 기술, 수준의 향상과 인재의 양성, ⑤ 국민생활의 안정, ⑥ 수출의 지속적인 확충 등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년간(1979~80년)의 조정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제들은 단기만에 해결할 수 없고 시장가격기구와 물질적 자극제 등의 도입에 의한 경제운용 체제의 개혁은 中共이 사회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한은 限界性을 갖고 있다.

8) 제 8 차 5 개년 계획기(1981 ~ 85 년)

中共은 1982년 9월, 당 제 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세기末까지 약 20년간 공·농 총생산액은 1980년의 4배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국민생활수준은 일단 안정적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체 국면에서 탈피하여 조속히 상

승적인 지속성장 국면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각 경제부문에서 정체국면에서 성장국면으로 이행하는 데는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당면한 문제점은 에너지의 개발과 증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건설자금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국제경제 환경과 국내정치적인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中共의 경제개혁은 1981년까지 불안정한 경제정세와 국내 보수세력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동구국가들의 경제개혁보다 뒤떨어지는 수준에 있다. 그러나 1982년 이후 농·공업의 4배증가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개혁은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여기에 경제개혁의 시행이후 재정자금의 과도한 분산으로 인하여 중앙당국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배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分權化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개혁과 자금집중의 필요성을 어떻게 양립시켜 실시하는가 하는 당면 문제가 남아있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國債의 발행, 에너지, 교통중점 건설기금의 설치 등과 같은 조치, 은행에 의한 예금의 흡수 등이 필요하지만, 中共에서는 債務償還率을 20%이하로 억제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관도입의 여지도 많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와 모순을 극복하면서 經濟改革이 추진된다면, 중공경제 현대화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2.2 中共의 經濟改革

中共의 經濟體制 改革의 방침은 中共生産力の 발전상황과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들을 기초로 中共經濟體制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겨냥하고 있다. 즉 중공의 사회주의 경제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기초가 빈약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다가 생산의 사회화정도도 높지 않으며 교통과 통신 운송시설의 낙후와 상품경제의 미발달로 경제기술이 不均衡的으로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中共은 현 단계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生産財의 公有制가 우위에 있는 여러 종류의 經濟要素가 공존하는 상품경제의 사회주의 經濟體制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을 들어보면, ① 국가, 경제단위 그리고 노동자 등의 여러 층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計劃調整과 市場調整이 상호 결합된 일종의 混合調整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③ 경제조직과 경제법칙에 의거하여 經濟體系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집단-개인에게 물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體系로 전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51)

1) 中共 新經濟政策의 方向

中共黨 11期 3中全會議에서는, 산업간의 불균형 시정을 비롯한 기존의 좌경적인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한 시정이 지적됨에 따라서 중공당 중앙은 국민경제에 대한 調整·改革·整頓·提高의 八字方針을 채택하였고, 특히 調整이 8자방침의 관건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각 부문간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速成論에 기초한 좌경적인 경제사상은 경제조정 정책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규모의 적절한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지출이 재정수입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와 화폐공급이 과

註 51) 薛暮矯, “中國經濟發展的 回顧和展望”, p. 5.

잉을 유발함으로써 물가 불안정과 민생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1980년 12월, 중공당 中央工作會議에서는 이같은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제정책상의 좌경적 사상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진일보한 경제조정을 위한 기본방침의 관철이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공의 신경제정책에서는 인민생활의 개선을 기초로 한 경제건설이 강조된다.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력의 상호적응이 국민경제의 안정발전의 주요 원칙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서 재정수지 금융수지 및 물자공급이 3개 평형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공의 신경제정책은 4개 현대화의 중점을 현존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데 둘 것을 강조하고 그 내용으로서 합리적인 기술개조를 통하여 소모를 줄이고 질과 효율을 제고시켜 사회생산을 확대시키는 한편, 기본건설에 대한 자본의 집중적 투자가 대규모의 자본을 요하거나 工期가 긴 중공업 건설에 치중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데 특색이 있다.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하에 中共當局이 설정한 경제체제 개혁의 방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중앙행정부문과 지방관서의 엄격한 관리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상대적으로 독립된 經濟單位를 만든다. 기업은 國庫受納의 임무를 수행하며 國家計劃에 따른 지시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社會需要를 감안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능동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관장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활동에 자주적 決定權을 가지며, 獨立採算制를 운영하도록 한다.

註 52) 金弘志, 「中央의 經濟體制 개혁」, 「中蘇研究」, 漢陽大 中蘇研究所 (6권 1호 1982 봄), pp. 67 ~ 68.

둘째,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有機的인 관계가 없이 각각 자기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 企業들을 專門化와 경제의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각종의 經濟聯合體를 구성시켜 나간다. 즉 기업들의 자발적인 互惠를 기초로 하여 전국적, 지역적, 또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經濟聯合體를 구성시켜 나가도록 한다.⁵³⁾

세째, 통일된 상품시장을 조성시켜 유통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生産財와 消費財를 다같이 商品化시키는 데, 다만 국가계획에 포함된 소수의 중요품목과 일반의 生必需品를 계획적으로 분배를 하고 이 이외의 모든 상품은 자유롭게 賣買할 수 있도록 한다.

네째, 상부에서 하부로의 명령하달 위주의 計劃制度를 하부에서 상부로 그리고 상부와 하부사이에 指導性과 命令式이 상호결합된 計劃制度로 바꾸어 나간다.

다섯째, 주로 행정명령식으로 경제를 관리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가격, 세금, 용자 등의 경제 수단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조절해 나가도록 한다.

여섯째, 경제분야의 立法, 司法,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여 法の 紀綱을 바로 잡으며,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서 각급의 黨-政 機關은 경제관리의 구체적 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중요한 政策方針만 관장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당-정의 지나친 경제업무의 간섭현상을 배제시켜 나간다.

일곱째, 黨委員會의 지도아래 있는 工場長責任制를 職工代表大會,

註 53) 廖季立, “中國經濟體制改革的新進展”, p. 3.

지도하의 공장장 책임제로 바꾼다.

여덟째, 社會化와 대량생산의 수요에 따른 유기적인 연계성에 따른 각종의 産業基地를 설치한다.

이 상과 같은 사항들을 상호연계성과 유기성을 갖춘 완전체로서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中共은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現代化의 수요에 올바르게 부응해 나가는 한편, 현단계의 社會生産力의 발전 수준에도 합당하도록 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2) 經濟改革의 추진내용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中共經濟改革의 추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企業經營의 自主權 실시

1980년 상반기까지 기업경영의 自主權을 시험적으로 부여받은 工業分野의 대상기업은 약 6,600개에 달함으로써 전국 공업부문에 있는 全民所有制 기업의 총생산액 가운데 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험대상 기업들이 부여받은 자주권은 그 기업에서 취득한 企業利潤의 일부분을 보유하여 기업자신이 관장하는 것, 생산-공급-판매에 대한 일부 權限을 행사하는것, 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經濟條件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것 등이다.

이와같이 이 기업들은 무제한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제한된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 제한된 자주권의 행사가 기업의 발전과 직공들의 적극성 발휘, 생산증대, 경영관리 등에 대하여 커다란 추진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서 1980년 상반기중 上海市의 공업 총생산액은 1979년 동기 대비 8.5

%가 증가하였는 데, 이 중에 시험대상인 紡織局의 생산실적은 같은 기간중 1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계획적인 市場調節 실시

과거에는 생산재를 책정된 생산목표에 따라서 計劃生産을 하면 生産된 全量을 정부의 分配計劃에 따라서 엄격히 계획 분배를 하여 왔으나 이제는 책정된 계획분배량 이외에 市場需要를 감안한 追加生産이 허용되면서 自體販賣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生産財가 商品化되어 점차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생산재의 판매경로도 다변화 되고 있다.

初步集計에 의하면, 1979년에 구매, 판매, 가공, 운송 그리고 재배분된 각종의 물자가 人民幣 35억원에 달하였는데, 소비재 방면에서는 생산판매 활동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財政制度의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재정제도는 수입에 따라 지출을 책임지게 하고 兩級의 財政管理에다 기업이윤을 加上할 수 있게 하여 수입의 증대에 따라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지방기업이 재정상 增收와 支出節減을 기하는 데 적극성과 主動性을 발휘하도록 支出節減을 통하여 남은 예산의 사용을 허용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980년 상반기중에 지방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한 人民幣 360여억원에 달하였으며, 지방재정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가 절감된 人民幣 230여억원이었다. 이와같이 지방에서는 재정 관리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자기의 재정을 관리하듯

이 收入源 증대와 지출 절감을 시현시킨 효과가 나타나게 되자, 많은 地方部門에서는 장기적으로 결손을 내오던 기업들에 대하여 生産中斷, 또는 他業種으로 生産轉換을 시킴으로서 기업의 財政管理를 강화하게 되었다.

④ 專門企業 육성과 聯合體추진

28개의 省-市통계에 의하면 1980년 말 현재, 각종의 기업화된 전문기업과 본 공장의 수가 1,900여개 이상에 달하였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과 지역, 全人民所有制 企業과 集團所有制 企業, 都市 企業과 農村社隊 企業 상호간에 聯合運營, 補償貿易 등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각자의 장점들을 충분히 발휘토록 함으로써 경제효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현재 中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합체 유형은,

- i) 專門工場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이 유사한 공장들과 연구단위로 연합시켜 專門企業을 설립,
- ii) 국영공장과 生産潛在力을 가진 도시의 집단기업, 지방의 社隊 企業과 合作經營 또는 聯營形式을 갖춘것,
- iii) 加工地區와 原料生産地의 연합형식
- iv) 農 . 工 . 商의 聯營企業형식
- v) 각종의 株式會社형식의 外國과의 合作投資企業들의 설립등이다.

⑤ 基本建設 投資를 정부출자에서 은행융자로 전환

基本建設 投資에 있어서 종래에는 政府가 직접출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오던 것을 경공업, 방직공업, 석탄, 전력, 석유, 교통, 건축자재, 상업, 관광 등 10여개 업종의 550여개 建設項目에 걸쳐서 시

협적으로 정부출자에서 은행유자로 전환시켰다.

경공업, 방직, 철도, 교통, 금, 석유, 상업 등 10여개 업종에 대하여 潛在力 개발이나 革新 및 改造사업을 하는 경우는 시험적으로 中短期 設備融資가 제공되었는데, 1980년 6월말까지 이미 대출된 자금은 人民幣 20여억원에 달하였다.

이와같이 건설투자 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출자가 은행의 유자방식으로 전환 되면서부터 경제적 책임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은행이 지닌 본래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었으며, 그 투자효과도 提高된 것으로 나타났다.

⑥ 經營의 多角化 장려와 個體經濟 허용

1979년에는 900여만명이 취업을 하였는데 이 중에 약 44%에 해당하는 400여만명은 집단소유제 기업에, 1980년 상반기에는 거의 300만명이 새로 일자리를 찾았는데 이 중에 약 32%인 100만명 정도가 집단소유제 기업에 안배되었다. 그리고 개체 노동자의 수를 보면, 中共政權수립 초기인 1953년의 경우에는 900만명에 달하고 있었지만, 1966년에는 200만명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그 후 10년 동안에 거의 소멸되어 1978년 말에는 겨우 15만명만 남았다. 그러나 1979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1980년 5월 현재는 33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농촌의 경우 각기 다른 특수한 경제 여건에 따라 정책을 배려하여 생산목표가 주어짐에 따라 어떤 生産隊는 組로, 그리고 산간벽지에는 家家戶戶로 할당이 됨으로써 個體經濟 (Individual Household)의 존재가 새로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도시의 경우에도 어떤 集團所有制의 手工業, 소매 상, 음식업, 운수업 건축업이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개인경영의 수공업 종사자와 가두 행상인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集團經濟에서는 도시나 지방의 상업, 음식업 服飾業, 수리업 기타의 써비스업 등의 대부분이 아직도 手工의 노동에 의존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고 경영의 분산 및 다각화와 고용기회 증대라는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같은 集團經濟에 대하여 中共은 현재 사회주의 경제를 보다 신속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교량 및 社會雇傭 증대를 달성하는 폭넓은 첩경으로서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 집단경제에 관한 현단계의 주요정책으로서는 첫째, 생산의 길을 확대개방시킴으로써 집단 경제의 대대적인 참여 허용, 둘째, 經濟單位 구성의 자발성, 이윤 손실발생에 努力成果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 및 責任부여등의 集團經濟의 自主權 중시, 세째, 집단 경제단위의 賃金과 福祉厚生에 대한 치우개선 네째, 집단경제단위를 국영기업과 동일시 함으로써 집단 경제단위의 육성 권장 등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⑦ 對外貿易 관리체제의 개혁

앞에서는 기업의 자주권, 독립채산제, 중앙기구에서 지방기구로의 권한위임, 기업의 聯合體구성, 個體經濟와 集團經濟의 육성 등과 관련하여 對內的인 측면에서의 경제관리체제 개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한편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경제관리체제 개혁에는 對外貿易 관리체제개혁이 있는데 이것은 中共의 대외무역 정책이 1970 년대에

와서부터는 과거의 자급자족식 自力更生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互惠平等과 쌍방의 需要充足이라는 기본원칙 아래서 대외무역 확대가 급속히 추진되는 것을 뜻한다.

中共 國家統計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對外貿易이 1970 년대에 와서 金額面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의 構成比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表 5〉참조) 즉 1952 년을 기준년도로 하였을 때, 1975 년의 수출입 합계지수는 449.5 이던 것이 불과 4 년후인 1979 년의 지수는 705.3 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中共의 1971 년의 UN 가입, 1972 년의 日本과의 국교정상화를 전후한 歐州先進國 및 ASEAN 諸國과의 수교 그리고 1979 년 1 월 1 일의 美國과의 수교 등 對西方 관계개선에 따른 對外開放 政策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특히 中共이 4 개 現代化를 추진 하면서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資本財는 1979 년의 경우,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증가율면에서도 수입이 수출을 앞서게 된 요인중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계획경제를 중시하여온 中共이 대외무역의 收支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즉 급속한 수입에 따른 所要資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대응하는 수출의 급신장을 추진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과거와 같이 완만한 신장, 폐쇄된 정책, 단순했던 체제 中央集權式 관리 등으로는 금세기 말까지 現代化 계획을 성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中共은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서도 대외무역관리체제 개혁을 1979 년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表 4〉

中共의 수출입 실적

單位：(金額 - 人民幣 億元)
指數 - 1952 = 100)

年度別	金 額			指 數		
	輸出入合計	輸 出	輸 入	輸出入合計	輸 出	輸 入
1952	64.6	27.1	37.5	100	100	100
1957	104.5	54.5	50.0	161.8	201.1	133.3
1965	118.4	63.1	55.3	183.3	232.8	147.5
1975	290.4	143.0	147.4	449.5	527.7	393.1
1979	455.6	211.7	243.9	705.3	781.2	650.4

資料：中共國家統計局，「中國經濟年鑑 1981」。

〈表 5〉

中共의 輸出入商品 構成比

(單位：%)

年度別	輸 出			輸 入	
	工 礦 產 品	農 產 加 工 品	農 產 品	生 產 品	消 費 財
1952	17.9	22.8	59.3	89.4	10.6
1957	28.4	31.5	40.1	92.0	8.0
1965	30.9	36.0	33.1	66.5	33.5
1975	39.3	31.1	29.6	85.4	14.6
1979	44.0	32.9	23.1	81.3	18.7

資料：〈表 4〉와 同一

⑧ 價格管理體制의 개혁

中共은 價値效用과 관계되는, 경제는 일종의 계산상의 道具나 형식으로 간주하고, 計劃價格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침이 곧 장기적으로 價格을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가격이란 장기적으로 固定不變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오면서 產品의 생산과 교환에 뿐만 아니라 資金의 축적과 배분면에 있어서도 시장의 기능을 도외시 하여 왔다.

근 30년에 이르는 中共 社會主義 경제건설 과정중(1979년 이전까지)에서 시장경제와 價格理論을 배척하고 계획경제에 주력해온 결과, ① 생산의 수급 불균형, ② 비현실적인 計劃價格, ③ 專門化와 分業化 추진에 대한 장애, ④ 國際價格과 격리된 國內價格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중공상품의 가격이란 합리적인 原價概念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市場經濟의 무시, 장기적인 물가안정의 유지를 위한 價格의 長期凍結과 같은 정책등 비합리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상황아래서 책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價格管理 體制의 개혁은 計劃調節과 市場調節을 상호 결합시킨 混合調節의 原則 아래서 시험적으로 추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國家計劃의 지침아래서 가치개념을 가격의 조절기능에 이용하며, 市場調節, 市場競爭 유통경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상품가격의 統一管理는 계속 견지하여 나감으로써 價格管理에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여 나가려는 가

가격관리체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⁶⁾

첫째, 價格管理權限을, 國務院산하의 物價綜合部署나 지방정부 및 각 기업에 적절히 下向委任하도록 한다.

둘째, 종래의 單一價格體制에서 復數價格體制 즉, 국가규정가격, 浮動價格, 賣買雙方間的 協議價格 (Negotiated Price), 集市貿易價格 (Price at the Local Fair for Product) 등을 허용하도록 전환시켰다.

셋째, 이와같은 복수가격체제에 따른 企業의 價格決定權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가격관리 체제의 개혁실시에 몇 가지 先行되어야 할 원칙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價格이란 價値의 변동에 따라서 경직되지 않은 채 변동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의 책정과 조정은 모든 業種의 경우에 대체로 평균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平均原價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품에 따라서는 시장의 수급상황에 근거하여 가격의 오르고 내림을 겪으면서 生産이 조절되고, 流通도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消費는 올바르게 善導되어야 한다.

한편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高價로든 低價로든 정책적인 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高價의 商品으로부터 高率의 稅를 징수하고, 低價의 상품으로 부터는 低率의 稅를 징수하거나 면세 또는 심지어 국가의 보조금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商業과 工業間的, 그리고 工業에서의 각 부문간 利潤分配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稅收가 가격 형성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註 56) 何建章, “現段階的 中國經濟政策” 중에서 가격정책에 관한 부문.

제 3 절 동구제국의 경제改革

3 . 1 經濟改革의 背景

동구는 제 2 차 대전 후에 소련공산당에 의해 소련의 위성국으로 된 후 1950 년대와 1960 년대를 거치면서 소련의 종속경제, 즉 赤色帝國主義의 식민지로 발전되었다. 이 기간중에 소련의 지배나 공산당의 탄압에 항거하는 자유화 운동이 있었으나, 모두 보다 강력한 지배와 탄압정치로 끝을 맺었다.

한편 1960 년대부터 계획경제에 의한 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자 1970 년대에 들어오면서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독자적인 발전책, 즉 소련으로부터 석유와 자원, 서방으로부터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동구의 노동력이라는 3 차 결합의 발전 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나 이것은 오히려 2 중적 종속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소련으로부터의 석유공급 감소와 가격인상 사태 그리고 서방으로부터의 신용한도 초과와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인한 자본도입의 격감으로 동구권도 인플레이션, 실업, 저성장, 국제수지 악화, 자원 부족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경제적 원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東歐圈 경제위기는 제 1 차 석유파동때는 비교적 소련으로부터 염가의 풍족한 석유공급과 서방으로부터의 충분한 자본공급으로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 2 차 석유파동이후에는 석유의 高價 少量 공급과 외자도입 격감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더 가중되어 왔다.⁵⁷⁾

註 57) "COMECON Energy" The Economist, 1981.5.9, pp. 97 ~ 99.

이러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첫째 1970년대 후반에 강행한 급속한 성장 정책에 있다. 주로 석유화학, 철강, 기계공업 및 비철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거나 원자재나 부품의 대외의존적 산업에 집중된 서방자본에 의한 과열투자 붐이 투자의 왜곡화 현상을 일으켰다.⁵⁸⁾ 그 결과 對蘇 에너지 의존도의 심화와 對美 원자재 의존도의 심화라는 2중적 종속화가 강화되었다. 둘째 원인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정세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적응할 수 없는 사회주의적 경직화에 있다. 모험과 유인을 빼앗아 가는 의사결정의 집중화, 생산량만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려는 비신축적인 가격제도, 혁신과 개혁의 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보상과 벌칙의 결여 등으로 자원의 낭비, 생산성 저하, 그리고 생활개선에 대한 좌절감 등이 점고되어 왔다. 그 결과 東歐에 있어서는 소련이 1968년에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한 체코를 침공한 후 관료제와 중앙계획을 수정하려는 2개의 수정주의 노선이 대두하였다. 그 하나는 즉 폭넓은 기업의 가치, 보다 현실적인 가격수준, 그리고 관리자에게 생산책임 일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이윤과 비효율성에 관한 결정은 기업관리인에게 맡기고 조세와 같은 총체적인 지침과 기구에 관한 결정은 중앙계획수립자에게 맡기려는 헝가리나 폴란드의 강경한 개혁론자의 노선과, 중앙통제방식을 고집하면서 생산증가를 위해 관리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상여금제도를 강화하려는 동독 체코, 루마니아의 강경한 노선이 바로 그것이다.

註 58) "Why the Socialistic bloc's plans aren't working", Business Week, 1981. 9.21. pp. 78 ~ 79.

3 . 2 유고의 新經濟管理制

유고의 경제체제는 소련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로부터 최초로 탈피하여 소련의 집중통일적 계획경제로부터 기업의 자주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장기능을 채용한 권력분산체제인데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⁹⁾

① 사회소유제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생산자료와 노동자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② 국가에 의한 국민경제의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직접 자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協商的 계획제도의 운용에 의해 시장의 실제 수요와 上向式 협의방식으로 경제계획이 제정된다.

④ 국가는 일반적으로 최저 收入基準만을 결정하고, 기업수입의 분배문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초한 직공의 수입규모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 物資, 技術의 공급을 생산품판매와 같이 시장기능에 맡기고, 생산자료는 상품이 아니라 공산주의 교의를 타파한다.

3 . 3 헝가리의 경제관리체제

헝가리의 경제개혁은 경제자원의 집단소유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획경제와 명령지시의 개념으로부터 경제계획과 조정의 개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利潤誘因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일부를 수정하려고 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같은

註 59) 甘士杰, “蘇聯 東歐各國的 經濟體制改革”, 「社會科學」(上海), 1981年 第1期 및 高成興, “南斯拉夫的 計劃制度及其主要特點”, 「經濟問題探索」(北京), 1980年 第2期.

헝가리 경제 체제는 소련의 전통적 관리체제나 유고의 체제와 다른 집중계획경제와 시장조절작용을 상호결합시킨 독자적 신경체제인데 그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⁶⁰⁾

① 경제계획상 집중과 분산을 상호결합한다. 예컨대 국가는 기업에 대하여 명령형식으로 계획지표를 하달하지 않고, 이윤에 의하여 기업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며, 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간계획을 결정한 후 상급기관과 협의, 계획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편 국가는 통일적인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 각급기업에 하달·참여케 하는데, 계획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는 각종 경제수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명령식 행정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물자공급은 기본적으로 국가통일 배합제도를 취하지 않고 자유구매방식을 채택하나, 물자 수요 공급상의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한정적인 행정조치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통일배급과 자유구매를 상호결합시킨다. 예컨대 육류는 통일배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섬유공급에는 공급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계획과 민생에 관련되는 연료, 원자재, 기본소비품 등의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고정가격을 실시하고 사치품이나 공급에 여분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계기업이 자유가격을 책정하는 한편, 국가계획과 민생에 관련되는 중요성이나 생산판매 상황에 따라 최증가와 최저가의 한계를 규정한다.

註 60) 甘士杰, 前掲書 및 高成興, 前掲書, 및 蘇紹智, “匈牙利經濟體制改革中的若干理論問題”, 「經濟問題探索」1980年第2期.

7차 5개년 계획기(1959 ~ 65)의 6.8%보다 0.9% 포인트 상승한 7.7%로서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주)}

그러나 이상과 같이 경제실적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은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70년대 들어서부터 많은 수정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⁶¹⁾ 1971년 6월부터 1973년 4월 사이에 취해진 개혁 수정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중앙에서 결정되는 기업 목표의 수가 다시 증가되었다는 것과, ②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몇 개의 기업을 묶어 合同(обединени야 : associations)이라는 새로운 관리 생산 단위를 만든 소위 '管理改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소련 경제가 1965년의 경제개혁에서 의도한 分權化의 방향과는 반대로 集權化 쪽으로 다시 선회하여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은 재집권화는 결국 당초의 경제개혁이 분권화와 市場메카니즘의 이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소련 경제개혁의 한계 및 소련 경제체제의 保守性은 이를 뒷받침하는 소련의 공식 경제이론이 市場社會主義論 같은 급진적 개혁 이론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즉 소련 경제가 이론적으로도 상품생산 즉, 시장메카니즘 및 분권화를 거부하게 되는 배경에는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모스크바 대학의 차골로프(N. A. Tsagolov)를

註) 한편, 소련 경제개혁의 실패를 강조하는 사람은 공업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8.5%로 7개년 계획기보다 0.6% 하락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개혁의 주요동기의 하나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있다고 볼때, 이 기간의 소비재 생산증가율을 연평균 8.4%로서 7개년 계획기의 6.9%보다 1.5% 상승함으로써 경제개혁의 주요목적의 하나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1) P. R. Gregory & R. C. Stuart, op. Cit., pp. 357 ~ 359.

중심으로 전개된 보수적 견해, 곧 사회주의의 본질은 소유관계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에 있는것이 아니라 생산관계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계획적인 결합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商品生産經濟일 수 없으며, 또한 사회주의에서 생산되는 商品을 본질적으로 자본주의하의 상품과는 다른 商品은 形態만을 가지게 된다는 보수적 견해가 소련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다는 데 있다.

1.2 70년대 후반 이후의 成長率 鈍化추세

소련 경제는 경제개혁 이후 70년대 전반까지 두 차례(8차와 9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7.7%에서 5.7%로 연평균 성장률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70년대 전반의 국민소득 성장률의 하락은 공업보다 농업 부문의 성장률이 60년 후반의 4.3%에서 0.7%로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업부문의 성장률은 각각 같은 기간에 8.5%에서 7.4%로 그 하락폭이 작으며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8%에서 6.8%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성장률 둔화 추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국민소득 증가율이 70년대 전반인 9차 5개년 계획기의 5.7%에서 10차 계획에는 4.2%로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비교적 양호했던 공업부문의 성장률이 7.4%에서 4.4%로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9차 5개년 계획기에는 8차 5개년 계획보다 상승했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0차 5개년 계획기에는 3.2%라는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 추세는 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어 1982년에는 국민소득과 공업생산이 각각 2.6%와 2.9%라는 소련 역사

상 최저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소련 경제는 60년대 중반의 경제 정체상태와 가히 비교되지 않을 만큼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련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70년대 후반 이후 기존 資源供給構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인구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노동공급률이 감소되고 소련의 서부지역의 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자원개발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되면서 수송 비용을 상승시킨 것이다. 또한 기존의 기계 설비가 노후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투자 증가률도 감소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유통의 통제에 따라 신기술 개발 및 기업에의 응용이 늦어지면서 기술 수준이 서방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자원공급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간 추구해 온 중앙 집권적 계획체제하에서의 중공업 우선정책이라는 外延的 成長 政策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즉 경제의 규모가 작고 덜 복잡한 단계에서는 계획경제 메카니즘에 의한 중앙에서의 명령과 감독에 의해 경제 전반의 숨은 잠재력을 계획 목표의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중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메카니즘을 기초로 한 중공업 우선 성장정책도 농업 및 경공업 등 비전략 부문의 經濟剩餘를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에 투입함으로써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계획적 공업화정책은 점점 그 모순점을 노출하게 되었는데 복잡 비대해진 경제조직을 중앙

에서 계획 관리하는 데 따른 規模의 不經濟가 공업의 團地化와 농업의 集團化를 통한 規模의 經濟를 상쇄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고 불균형 성장정책에 의해 희생되어 온 부문이 전략부문의 발전 수준을 뒷받침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성장의 桎梏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외연적 성장정책의 한계는 특히 70년대 후반이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자원공급의 애로(bottleneck)요인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세째,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對蘇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레이건 미행정부의 출현으로 동서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것과, 1979년의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서방 경제의 불황 등과 같은 소련경제의 대외적 요인이 가중된 결과 1979년 이후 1982년까지의 침체 심화현상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모든 요인은 先進社會主義國으로서 또한 共產主義로의 이행을 실현시킨다는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는 테두리내에서 모든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강요하는 소련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연유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⁶²⁾

1.3 集約的 成長政策으로의 轉換과 限界

전술한 소련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련은 생산성 향상과 투입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성장률의 증대를 도모하는 소위 集約的(內包的) 成長政策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

註 62) 朴齊勳, "소련經濟成長力의 評價와 展望", KIET「季刊共產圈經濟」(1984.12), pp. 34 ~ 53.

책 전환은 이미 1976년 이후 10차 5개년 계획기에서 투자의 증가율이 9차 계획기의 7.0%에서 3.4%로 半減된 사실에 의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기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그 전 기간의 절반 정도로 떨어짐으로써 성장 정책의 전환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율의 저하 및 전에 없던 심각한 資源制約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7월 소련 共產黨 및 閣僚會議에서 “결정 제 695호”가 채택되었다.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은, 1) 노동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및 원재료 에너지 이용을 절약하기 위해 원재료이용 삭감목표를 기업계획목표에 추가로 하달하는 것, 2) 소련경제의 주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特別目標計劃을 다수 수립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構造改革이 아니라 결국 중앙집권화의 강화 및 경제운영의 管理緊縮을 통해 현재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그러나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 ~ 82년 사이에 소련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짐으로써 이 결정이 당초 의도한 경제실적 개선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소련 경제의 위기에서 1982년말에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어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안드로보프는 먼저 勞動規律의 강화와 소위 “안드로보프 經濟改革實驗”을 63) 시작하여 1983년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으나 개혁의 주도자인 안드로보프가 집권 13개월만에 病死하고 골수 당뇨 출신의 체르네펬코가 금년 집권하자 개혁 움직임

註 63) ソ連東歐貿易會, 「ソ連東歐經濟速報」, (1983. 9.25).

은 중단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체르넨코마저 1985년 3월 사망하고 농업담당 서기로서 改革派의 기수로 여겨져 왔던 50대의 미하일 고르바쵸프(M.S.Gorbachev)가 집권함으로써 소련 경제는 보다 안정적인 정치권력 하에서 꾸준한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고르바쵸프는 취임연설에서 소련경제의 현단계를 質的轉換期로 규정하고 있다.⁶⁴⁾ 그러나, 이러한 집약적 성장정책이나 개발 전략으로의 질적 전환은 고도 성장의 달성을 목표로 형성되어 왔던 기존의 경제구조와 양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分權化와 시장메카니즘의 도입을 확대하는 기본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이 없이는 시장정책의 전환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며 새로운 개발 전략은 기존의 자원배분 구조 아래 기득권을 가진 집단 즉, 군부 당 등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表 7 > 최근의 소련경제 실적 (전년대비 증가율%)

	1976~1980 (10 차계획)	1981		1982		1983		1984		1985	1981~1985 (11 차계획)
	연 평 균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연 평 균 계 획
(지출) 국민소득 GNP*	3.7	3.4	3.2	3.0	2.6	3.3	3.1	3.1	2.6	3.5	3.4~3.7
추 계	2.7		2.1		2.6		3.0				
공업총생산	4.4	4.1	3.4	4.7	2.9	3.2	4.0	3.8	4.2	3.9	4.7~5.0
생 산 재	4.7	4.1	3.3	4.3	2.8	3.1	3.9	3.7	4.1	3.9	4.7~5.0
소 비 재	3.9	4.2	3.6	4.6	2.9	3.5	4.3	4.1	4.3	4.0	4.9~5.2
노동생산성	3.2	3.6	2.7	4.1	2.1	2.9	3.5	3.4	3.8	3.7	4.2~4.5
농 업	...	7.5	-2.0	10.2	4.0	10.2	5.0	6.4	0.0	6.7	-
투 자	...	4.5	3.0	...	2.0	3.2	5.0	3.9	2.0	3.4	-

資料 : Narodnoe Khozyaistvo v 1982g. Pravda (1984. 1.29, 1985. 1.26).

*는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註 64) Soviet Weekly, 1985. 3.16.

1.4 소련경제의 당면과제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련 유럽 지역의 자원의 고갈 현상과 경제 성장을 둔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련은 이제까지의 물량적 투입증대에 의한 外延的 成長政策으로부터 생산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집약적 성장정책으로의 일대전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베리아가 소련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용 에너지 생산기지에서 소련 국내경제를 위한 자원공급 기지로 전환되었으며 1974년에 BAM 철도의 건설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는 1979년 부터 1982년까지 4년연속 2% 미만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소련 역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그후 1983년에 일시 회복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1984년 이후 최근까지 소련 경제는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련이 택할 수 있는 代案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시장메카니즘의 이용과 分權化의 확대를 포함한 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해 집약적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정책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이념적, 현실적 제약이 따르며 위험부담이 큰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무진장의 부존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시베리아를 기반으로 이제까지의 양적 확대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으로서 현단계의 소련이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소련은 資源多消費型 산업구조의 발전을 통한 시베리아 개발의 집약화와 종합화로 자원공급기지에서 독립적인 새로운 경제중

심지로 시베리아의 기능이 전환되는 때까지 두 가지를 병행하여 나아갈 것으로 본다.

제 2 절 中共經濟의 當面課題

2 . 1 經濟改革의 成果

1978年 이후의 對內經濟活性化와 對外開放을 위한 中共 經濟體制改革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9年~1984年간의 국민총생산(GNP), 工農生產總額 社會生產額(國民所得)이 각각 9%, 9%, 8.1%가 되어 1953年~1979年 사이의 7.9%, 8.2%, 6%를 상회하므로써 高度成長을 하였다.

둘째, 農業, 輕工業, 重工業의 年平均成長率이 1953年~1978年 사이에 각각 3.2%, 9.1%, 13.6%가 되던것이 1979年~1984年 사이에 각각 9.4%, 11.2%, 6.6%가 되어 생산 구조가 合理化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國民所得의 分배구조에 있어서 1978년에 소비기금 63.5% 축적기금 36.5%이던것이 1984년 각각 68.8%, 31.2%가 되어 分배구조가 조정되므로써 생활개선에 기여했다고 한다.

넷째, 식품에 대한 지출비율은 원상유지이지만 衣類와 日用品에 대한 비율이 상승하고 그 質이 향상되어 소비구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다섯째, 농민, 노동자, 직원들의 수입분포가 고르게 되어 수입의 不平等度가 낮아지므로써 兩極分化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中共의 經濟改革은 生産力發展과 生活改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이 量的計劃目標를 크게 초과하였지만,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內在的 矛盾이 表面化 되었다.

첫째, 經濟過熱에 따라 에너지不足, 특히 일부지역에서의 送電中斷 交通輸送難, 重要鐵道幹線의 수송긴장, 港灣의 기능마비 등 국민경제의 증대한 隘路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鐵鋼, 시멘트, 木材, 나아가 消費財 특히 耐久消費品 등의 物質不足이 현저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物價 貴現象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獨點, 價格引上, 암거래 자본주의적 생활오염 등 새로운 不正風潮가 조성되고 있다.

셋째, 物質不足에 따른 輸入急增으로 수입이 초과되어 外貨準備가 急減되고 있다. 이밖에도 權力移讓이 순조롭지 않아서 政經分離가 잘 안되고 政策的 誤謬가 있다는 것 등 政策上的 문제점도 들 수 있다.

이같은 경제과열의 원인은 基本建設投資過大, 過剩消費에 있다고 보는데 現指導部는 改革初期段階의 困難이라고 보고 保守派는 지나친 經濟改革과 開放化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改革派의 일부는 企業自主權擴大, 市場에의 適應性強化를 계속 내세우고 일부는 이것과 아울러 行政的 方式의 必要性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 7차 5개년계획(1986 ~ 1990)은 이같은 경제과열의 경험을 토대로 安定成長路線을 採擇하였다.

2. 2 對外開放政策의 문제점

中共 經濟에 있어서 對外開放의 확대실시는, 2,000년까지 중공의 농공업생산력을 4배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現代化과업에 필요한 기

계설비 및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1982년까지 지속된 경제재조정정책으로 對外開放을 위한 개혁은 다소 후퇴하였지만, 대외개방의 확대 실시에 대한 중공당국의 의지는 지속되었다.

그 결과, 최근 經濟特區, 개방도시 등의 확대, 무역체제의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무역체제의 재정비는 주로 企業의 自主權擴大와 지방 또는 도시에의 권한이양 및 下放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중공의 무역규모는 대외개방이후 급신장 하였으며, 품목별로는 기계류, 설비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공산품 교역의 비중이 급증하였고, 교역 상대국 및 직접투자국은 일본, 홍콩, 미국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中共의 對外開放 推進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당면과제로 나타나고 있다.⁶⁵⁾

첫째,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정립하는 일이다. 즉 중공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행정관리보다는 경제적 힘에 의한 시장관리가 상설될 수 있도록 상품 경제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지령성 계획경제 주의를 지양하고 지도성 계획경제를 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이다.

둘째, 무역에 있어서 행정과 기업을 분리하여 무역경영의 자주권

註 65) 郭泰運, “中共 經濟開放의 결정요인과 구조적 변화”, 「中蘇研究」, 漢陽大 中蘇研究所, (10 권 1 호 1986. 봄). p. 220 ~ 221.

을 더욱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소폭으로 줄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동시에 지방간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도록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이 중복적으로 여러지방에 건설되는 일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세째, 對外開放의 확대에 따른 내륙과 연안도시와의 불균형 심화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외개방의 추진과 함께 개방도시가 확대 실시되고 이들 개방도시는 중공의 외연적 성장을 촉진하고 내륙간의 연계가 불충분하여 내륙의 발전이 크게 낙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개방의 추진과 동시에 내연적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네째,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송 등 하부구조 건설과 노동력의 공급 등 투자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중공의 경우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시설 등이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업이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투자활동을 할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문제들도 시급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2 . 3 右旋回 路線의 限界

中共經濟가 추구하는 實用主義노선이란, 중앙집권적, 계획적, 폐쇄적 독점적, 집단경제적, 경직적 . 비능률적인 사회주의를 지방분권적 . 시장적 . 개방적 . 경쟁적 . 개별경제적 . 신축적 . 능률적인 혼합경제에로의 전환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행이나 변화과정에는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되며, 혼란이 크면 클수록 실용주의노선은 지연된다. 예컨대 스타그플레이션 현상이나 밀수, 암거래, 탈세, 횡령, 뇌물 등 지하경제

현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실용주의 노선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용주의노선, 그중에서도 우선회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체제내적인 제한성이 존재하게 된다. 즉, ① 중공업우선정책 후퇴의 한계, ② 사유권이나 자율성 부여의 한계, ③ 신개방전략의 한계 등이 그것이다.

첫째, 중공업화 정책은 사회주의에 있어서 소비억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유일한 경제적 명분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공업화 정책은 경제력의 분산을 수반하는 자본주의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체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또 중공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세계강국이 되려면 경공업보다 현대적인 고도의 자본집약, 기술집약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체제적 노선보다는 체제유지적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공업우선정책의 후퇴 또는 경공업 정책의 강력한 추구는 이같은 한계가 자체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국유화, 계획화, 중공업화, 인민공사화 및 국영상업화 등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온 반면에 사유화, 자율화, 경공업화, 자영농화 및 자유시장화 등의 현상은 사회주의로부터 遠心作用을 일으킴으로써 반체제적 자본주의화를 지향하는 諸力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나 자율성 등의 부여에 의한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시될 것이다.

셋째, 신개방정책은 이제까지 수입의 억제와 가급적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전시효과적 기대상승을 억제하여 온 정책에서 국

제수지 적자와 전시효과 상승이라는 생소한 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증대를 통한 상대적인 기대상승은 대내개혁으로부터 유발되는 본능적 욕구증대와 함께 새로운 불만증대요인으로 부상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신개방전략에 의해 대외접촉이 대내개혁을 리드하기 보다는 오히려 리드당함으로써 우선회에 대한 선도역할이 아닌 제동역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國 外 編 〉

1. Robert Compbell, "Economic Reform in the U.S.S.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 VIII, No.2, May 1968.
2. The Economist, "Russia in the 1980s," 1979, 12.29.
3. Ludwig Von Mises, Economic Calculation in Socialism, (1922) from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1.
4. Kornari, J., and Liptak, T., "Two-Level Planning," Econometrica Vol. 33, No.1, Jan. 1965.
5. David A. Dyker, The Soviet Economy. Crosby Lockward Staples, London, 1979.
6. The Stalled Soviet Economy, Business Week, 1981.
7. Holland Hunter, "Summary Observations and Reflections," Holland Hunter ed., The future of the Soviet Economy: 1978-85, Boulder, Colorado: West View Press, 1978.
8. George R. Feiwel,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s in the Soviet Union," Donald R. Kelley ed., Soviet Politics in the Brezhnev Era, New York Praeger, 1980.
9. Joseph S. Berliner, "The Innovation Decision in Soviet Industry" (Massachussettes: MIT Press, 1976).
10. CIA, Estimated Soviet Defense Spending in Rubles: 1970-75, SR-76 - 1012/u, May 1976.

11. William T. Lee, "Intelligence: Some Issues of Performances," Francis P. Hoerber and William Schneider Jr., eds. Arms Men and Military Budgets: Issues for Fiscal Year, N.Y.; Crane Russak Inc., 1977.
12. Stanley H. Cohn, "Economic Burden of Defense Expenditures,"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Soviet Economic Prospects for the Seventies, June 27, 1973.
13. Michael Boretsky, "The Soviet Challenge to U.S. Machine-building,"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Dimensions of Soviet Economic Power, Hearings, 87th Congress, 2nd Session, 1982.
14. CIA, Soviet Economic Problems and Prospects, ER 77-10436 un, July 1977.
15. D. Gale Johnson, Progress of Economic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2.
16. The Great Leap Outward, Time, 1978.
17. Nove, A.,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London, 1969.
18. Bruce Parrot, "Soviet Technological Progress and Western Technology Transfer to the USSR: An Analysis of Soviet Attitudes," Paper Prepared for the office of External Research,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U.S. Department of State, July, 1978.
19. Paul Cocks, "Administrative Reform and Soviet Politics", US Congress, Soviet Economy in the 1980: Problems and Pros-

- pects, Washington D.C., US Gov't Printing Office, 1982.
20. The Economist, COMECON Energy, 1981, 5, 9.
 21. Why the Socialistic bloc's Plans aren't Working, Business Week, 1981. 9.21.
 22. Siviet Weekly, 1985. 3.16.
 23. Pravada, Sept. 28, 1965.
 24. Pravada, July 4, 1978.
 25. Eko, No.47, Nov. 1965.
 26. Pravada, April 6, 1966.
 27. 「人民日報」, 1980.12.26.
 28. " , 1981. 2.28
 29. " , 1981. 1.28
 30. " , 1958. 2.28
 31. " , 1966. 1. 1.
 32. 「新華社」, 1981. 1.29
 33. " , 1973. 9.25.
 34. " , 1977.12.31
 35. 「文耀報」, 1981. 1.29
 36. 「大公報」, 1980. 4.26
 37. " , 1981. 1.16
 38. 「每日新聞」, 1981. 2.14
 39. 監川伴明, 「ネシフの導入と労働組合」, 「歴史學研究」 第 444 号
1977.

40. 呂王蘭, “思想革命帶動生產革命”, 「紅旗」, 1966.
41. 甘士杰, “蘇聯及東歐各國的經濟體制改革”, 「社會科學」
(上海), 1981. 第1期.
42. 高成興, “南斯拉夫的計劃制度及其主要特點”,
「經濟問題 探索」(北京), 1980. 第2期.
43. 蘇紹智, “匈牙利經濟體制改革中的若干理論問題”,
「經濟問題 探索」 1980. 第2期.
44. ソ連東歐貿易會, 「ソ連歐經濟速報」, 1983. 9.25.

〈國內編〉

1. 安錫教, “中·蘇의 經濟的 理念論爭”, 「中蘇研究」
(제 8 권 2 호). 漢陽大學校 中蘇研究所, 1984.
2. 辛昇哲, “蘇聯의 中長期經濟改革의 內容과 展望”, 漢陽大
中蘇研究所 제 36 차 정기연구발표회, 1986. 5.
3. _____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經濟改革”, 「中蘇研究」
(제 6 권 3 회), 漢陽大學校 中蘇研究所, 1982.
4. _____ “中共式 實用主義 路線의 限界性”, 「共產圈研究」
(4 월호), 極東問題研究所, 1983.
5. 安澤源, “소련 경제의 문제점과 개혁운동(I.Ⅱ): 소련 경제의
구조”, 「中蘇研究」(9 권 1 호), 1985.
6. 金弘志, “中共의 經濟體制 개혁”, 「中蘇研究」(6 권 1 호),
1982.
7. 金潤煥, “中共經濟改革의 進行과 問題點”, 漢陽大 中蘇研究所,
제 36 차 정기연구발표회, 1986. 5.
8. 全應烈, “經濟發展 패턴에 있어서 中共과 蘇聯의 비교”,
「中蘇研究」(7 권 4 호), 1983.
9. 朴濟勳, “소련 經濟成長力의 評價와 展望”, KIET
「季刊共產圈 經濟」, 1984.12,
10. 郭泰運, “中共 經濟開放의 결정요인과 구조적 변화”,
「中蘇研究」(제 10 권 1 호), 1986.

